

## ✿ 제8절 산재사목의 성장

### 1. 주요활동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988년부터 산재환자들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목을 준비하였는데, 전담자를 구하지 못하여 계속 미루다가 2003년 2월 10일에 노동사목회관 5층에서 프라도수녀회의 정점순 수녀를 전담자로 산재사목을 시작하였다. 먼저 서울의 산재치료 병원들의 산재환자들을 정점순 수녀가 방문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두 명의 평신도가 매주 금요일에 여의도성모병원 진폐병동을 방문상담하였다. 이들은 임상사목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과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이들로 환자를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만 대상이 산재환자들이므로 산재법과 사회교리를 보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임경명 신부와 산재사목 공동체 미사

2003년 활동은 사목상담과 고충상담을 주로 하였으며, 병원방문을 통하여 개인상담과 그룹 나눔으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적응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반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산업재해가정을 방문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단체와 연결하였다.<sup>89)</sup>

진폐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여의도성모병원뿐이지만, 산재환자들을 치료할 때 심리·정서적 치료는 거의 병행되지 않았고, 가족들의 고통 역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등 병원이 운영문제로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다. 한편, 2003년 6월에 여의도성모병원 진폐병동이 진폐환자들의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하였는데, 산재사목이 이를 지원하였다. 이 소식지는 진폐환자들의 삶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진폐환자들이 좀

89)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3년 보고서 참조.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기 위하여 환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소식지이었다.

2004년에도 진폐환자들은 법률이 정한 합병증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생활대책이 없었고, 요양 진폐환자라도 입원하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제도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여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진폐환자가 사망하여도 병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진단서를 받기 어려웠으며, 진폐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노동부 심사과정에서 하향조정되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sup>90)</sup> 2003년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불합리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즉, 2004년 7월부터 한 명의 평신도가 재가진폐후원을 전담하고 11월에 파리 외방전교회 임경명 신부가 부임하여 함께 산재환자 방문과 재가진폐환자 가정방문상담을 시작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후원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재가진폐환자들의 실태조사에 전력하였으며, 10월 15일에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가리봉 외국인상담실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진폐환자 제도개선 시위

전국의 6만여 명의 진폐환자 중 치료와 요양을 받는 환자는 3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우리

90)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4년 보고서 참조.

나라의 진폐법은 진폐환자 중에서도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만 요양과 보상을 하여 병원요양이나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재가진폐환자가 허다하였다. 근대화의 산업역군이라는 미명으로 수천 미터의 지하 막장에서 섭씨 30도 가까이 이르는 지열과 석탄 먼지와 씨름하며 석탄을 캐냈던 이들은 진폐증이라는 병고와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들을 대신하여 부인이 막노동이나 파출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밤에는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남편을 간호하여 몸과 마음마저 피폐하여졌다. 재가진폐환자후원회를 구성하는 첫 걸음으로 2004년 11월 28일에 카페 ‘삶이 보이는 창’에서 미사로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일일찻집을 열었다. 이 카페는 예수회에서 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컴퓨터로 그 날 하루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노총이 진폐와 관련된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지원하였다. 2004년에 산업재해노동자협회가 산재수첩과 안내책자를 함께 제작하여 지원하고, 방문상담 나눔과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한국노총이 진폐환자들을 위한 사진과 비디오를 지원하고, 광산노조연맹이 진폐환자들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였다.

2005년에 장영순(로사)이 실무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은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재가진폐환자가정의 생활보조금, 의료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 산재와 직업병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환자들이 술과 담배에 의존함으로써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을 황폐화시켰는데, 2005년 9월부터 가톨릭알코올센터의 지원으로 여의도성모병원과 녹색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교육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동반하고자 노력했다. 재가진폐정밀검진자 교육은 주 1회 녹색병원에서 시행하고,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2005년 9월에 시작한 수도권 재가진폐환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2006년 6월까지 시행하였다. 산업재해 인정기준, 산업재해 보상실무, 산업재해 보상실무와 다른 보험과 인과관계, 산재보상보험의 한계 등을 노무사들과 산재노협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교육하였다. 또한 치료와 장애로 인하여 쉬는 신앙인 또는 새로운 세례자, 신앙에 관심 있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소식지 ‘동반’을 발간하고, 2005년 12월부터 인터넷 카페인 ‘동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sup>91)</sup>

2006년 홍보활동은 1월 12일에 EBS-TV 톨레랑스-‘광부 잿빛 먼지로 사라지다’에 산재사목팀이 출연하고, 울산 SBS-TV의 산재환자들의 상황, 원진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과 건강』에 실무자 3명이 인터뷰하였다. 10월 30일의 원불교 원음방송과 12월 4일의 평화방송 ‘꽃보다 사람’에 산재사목팀이 출연하였다. 2006년에 연대하고 방문한 단체는 산재노협·한국진폐협회·

91)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5년 보고서 참조.

한국진폐협회정선지회·노동과건강연대·전국진폐협회충남지회·대천성당·원진교육센터·한국노총·노사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본부·산재의료관리원·민주노동당산재간담회·열린우리당환노위보좌관재가진폐환자간담회·가톨릭단증독사목위원회·직업병폐질환연구소 등이었다.<sup>92)</sup>

2007년에 한강성심병원·광명성애병원·한일병원·녹색병원·용산중앙병원·여의도성모병원 등에서 방문상담을 하였으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산재노협·녹색원진교육·광산노련·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진폐협회·전국진폐 등 다른 단체와 연대하였다. 그러나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와 연대할 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할 산재사목팀으로서는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복음정신에 반하는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웠으며, 전국유일의 산재사목팀으로서 교구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교구와 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sup>93)</sup>

산재사목팀의 본부사무실은 고층처리 차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배려하고 어루만져야 하므로 전용사무실이 절실하였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04-27의 철거지역에 프라도사제회가 사용하다 비워둔 건물을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의 주선으로 서울대교구가 산재사목팀이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 12월 20일에 새로운 사무실의 축복식을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담당 김운회 주교 집전하였다. 2007년에 산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개정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휴업급여, 산재적용 대상 확대)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재사목은 이 약해진 측면 가운데 산재예방, 특히 직업병이나 약물중독 등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요청되었다.

## 2. 외국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

### 1) 독일 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sup>94)</sup>

2006년에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진폐환자들을 위한 특별논의기구를 설치하였는데, 2007년에

92)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6년 보고서 참조.

93)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7년 보고서 참조.

9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7년 독일 의료재활시설 해외연수시찰 보고서.

산재사목팀이 이 논의기구를 통하여 진폐제도가 개선되도록 선진국 의료재활시스템의 장점들(보상, 요양체계)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즉, 독일 산재의료재활센터, 진폐요양, 의료기관, 관련단체를 시찰하여 산재노동자와 진폐요양환자, 재가진폐환자 복지를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당시에 시행하던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반영하며, 진폐환자들을 위한 관련단체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사목팀과 진폐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선발된 10명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독일 의료재활 시스템을 시찰하였다.



독일연수회 간담회(국회)

먼저 보르메오수녀회가 운영하는 그라프사프트 진폐요양 전문병원, 바드 라이헨할(Bad Reichenhall) 직업병 전문요양원, 보쿰(Bochum)병원을 방문하여 시설전반, 치료와 요양체계, 입원·재가치료와 요양 등 의료제도 등을 견학하고 우리나라가 도입하여야 할 장점들을 파악하였다. 이어 독일광부 출신 진폐환자 가정과 산재보험조합을 방문하였으며, 독일의 노동사제들을 만나고 노동절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귀국한 뒤인 6월 4일의 독일 해외연수 간담회를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하고, 이어 7월 24일에 독일 의료재활시설시찰연수보고회와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먼저 방문팀은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재가진폐환자의 실태 파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진폐환자의 진단과 판정기간을 단축(1개월 이내)하여야 한다. 진폐환자 주치의 소견과 판정, 근로복지공단 판정결정권에 대한 속고가 필요하다. 병원이 난립하지 않고 진폐환자의 의료재활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요양원과 재활시스템의 구축을 전환하여야 한다. 진폐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상차원이 아닌 치료와 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진폐로 발생하는 합병증 내용과 이에 따른 의학적 요양내용을 개선하여야 한다. 진폐환자의 장애보상은 일시금이 아닌 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진폐증의 소견이 없는 경우 기관지염·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산재, 일반질병의 책임소재를 분석하기보다 우선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건강보험이나 산재인정은 나중). 진폐병형이 없어도 분진경력이 있을 때 기관지염,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흡연력 있어도 인정) 등은 우리나라도 직업병으로 속히 인정하여야 할 부분이다.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폐포에 먼지가 쌓여 발생하는 섬유화병변과 폐포가 아닌 기관지에 먼지가 쌓여 발생하는 기관지염 등을 구분하여 직업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노동자를 이해하고 함께 하기 위하여 똑같은 조건에서 노동하는 광부노동사제와 요양을 위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하여 수녀회가 독일 유일의 진폐요양전문병원을 설립하였다. 이는 진폐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응답을 한 결과이었다. 사목적인 배려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있는 것이다. 정부나 사회가 이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개선하도록 인프라 구축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었다.

매년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르고, 대부분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지만 생애 마지막 여정에서 도움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어 지역교회 사목자의 관심과 연결하고, 호스피스 등이 요청되었다. 또한 수도회나 교회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정부관계기관과 진폐환자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심각하였는데, 좋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을 펼 수 없으므로 교회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재가진폐환자들의 단체인 한국진폐협회가 처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2007년 9월 19일에 태백의 예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2001년에 정부가 진폐환자 종합대책으로 약속하였던 5가지 사항을 2004년에 폐기한 진폐제도의 개편으로 이행하도록 31일간의 단식농성과 5차례 쫓겨대회를 열어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진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하여 재가진폐환자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산재사목팀이 적극 나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장을 만들어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 일본 의료재활시설 연수시찰<sup>95)</sup>

일본 진폐환자 방문

산재사목팀은 서울, 경기지역의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산재노동자와 진폐환자들을 계속 만났다. 한국에 진폐환자가 3만 명이 넘지만, 진폐합병증으로 요양이 승인된 진폐환자들은 2008년 현재 10%에 해당하는 3,600여 명이고, 나머지는 장애급수를 받았거나 의증 등으로 요양이 승인된 이들과 별 차이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부로부터 보호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진폐제도개선협회의 운영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을 하기 위하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과 진폐협회, 노동계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방문 팀이 우리나라의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의료서비스, 아직도 방치된 재가진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2008년 3월 3~7일에 일본의 진폐의료재활 시스템을 시찰하였다.

먼저 전국안전센터, 도쿄안전센터 등 안전단체를 방문하여 산재예방시스템을 견학하고, 전

9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산재사목팀, 2008년 일본 의료재활시설 해외연수시찰 보고서.

국진폐환자동맹 도쿄동부지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산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산재환자가정과 폐광지역인 상판지역 광산촌, 히마와리진료소와 시비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산재발생 대책과 치료·요양 현실을 살펴보았다.

일본 의료재활시설 해외연수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4월 4일에 노동사목회관에서 서울 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 산재사목팀, 산재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보건 관계자, 민주노총 관계자 등과 함께 일본연수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일본과 한국의 산재 현실을 비교하였는데, 1970년대 초반 일본의 탄광산업은 폐광되어 한국과 20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진폐로 진단되는 사람이 매년 400~500명이고, 전체 3,800~17,000명으로 일본의 요양자는 한국의 3,800명에 비하여 5배 규모이었다. 일본인들은 ‘병원은 요양원이 아닌 치료하는 곳’으로 인식하여 병원을 요양원으로 인식하는 한국인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장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보상에 대한 개념인데, 한국은 가장으로서 가정에 생활비를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였다.

일본은 연금이 있어도 액수가 적어 산재보험료도 같이 받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진폐환자들은 한 달 2번 통원치료를 받고, 적은 수만 입원한 경험이 있지만, 우리나라 진폐환자는 상병연금 1일분(사실 1일분의 반)을 받기 위하여 2년간 지속적으로 입원하였는데, 이 때의 병원비용이 4,800~9,00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이 승인되면 책임자가 입원할 것을 권하였는데, 입원과 통원은 의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아직도 공단직원들이 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1960년에 진폐법을 만들었고, 1978년에 신진폐법을 새로 만들었다. 신진폐법은 구진폐법보다 강화된 것이어서 구진폐법에서 치료받는 이들은 구제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노동 후생성이 일본산업위생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속발성기관지염을 신진폐법에 받아들이면서 요양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진폐시스템은 각 도(道)마다 노동기준국의 진폐심사위가 판정하였으며, 합병증은 각 지방의 노동기준감독소 소장이 주치의가 올린 소견을 100%로 존중하여 판정하였다. 우리나라 주치의는 소견을 올려도 환자상태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일본은 주치의가 노동기준감독소에 소견을 내면 100% 수용을 하는 등 주치의 소견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의 정부는 의사와 환자를 못 믿고, 의사는 정부와 환자를 못 믿으며, 환자는 정부와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은 진폐정밀검진을 받고 싶어도 인우보증에 없으면 정밀검진을 받을 수 없고 진단·통보

기간이 너무 길어 진폐정밀검진 결과통지서를 받기까지 4~6개월이 걸리지만, 일본은 반나절, 독일은 하루 뒤에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활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심폐기능장애에 따라 차등하여 일시불을 받는 부분도 조정하고자 하였다. 노동부가 요양체계개선부분은 요양대상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진폐절차의 개선을 공감하였다. 3,750명의 요양환자의 치료가 합리적이고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입원·통원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하였다. 당시의 제도가 개선되도록 확정되지 못하는 것은 요양, 재가의 차이를 없애고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고, 경총은 산재보험기금에서 당시보다 많이 소요되면 반대하였으며, 에너지관리기금은 다른 법률이므로 정부부처와 조율하고 있었다. 유족급여문제는 기초단계를 논의하고 있었고, 요양기관 가운데 급성호흡기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독일, 일본의 경우는 치료중심이고 각자 의견이 다르므로 이를 우리에게 반영하기 힘들었다. 당시는 요양비가 매우 많이 들었으며, 치료중심이어야 하는데 관련부처가 자신들의 일을 방치하였다. 한국의 진폐제도는 일본의 진폐제도와 비슷하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만, 일본은 진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고 적극 예방치료를 하지만,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방치하기 때문에 고민이 드러나지 않았다.

## ✻ 제9절 이주사목

### 1. 이주노동자상담실

#### 1) 1998년 주요활동<sup>96)</sup>



이주노동자상담실

1998년 이주노동자상담실의 주요활동은 고충상담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출입국관계, 의료, 기타상담 등이 많이 취급되었으며, 연수생 적치금 문제와 연수생 관리업체의 횡포 등 연수생들의 제반문제 해결도 주요과제였다. 조사연구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상담내용의 통계작업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상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관계병원의 협조로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9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8년. 직원들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신앙행사 등 연례행사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과 사목방문보고서 참조. 이하 같음.

1998년의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기간에 약 4만 6천 명의 불법체류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였으나,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갔으며, 일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회사가 본국으로 송금하여 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출국하였다. 불법체류자들은 IMF 직후 가장 먼저 감원대상이 되어 체불임금을 기다리다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였고, 출국경비를 받은 사람들 역시 3월 15일부터 매진되기 시작한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여 출국하지 못하였다. 영세·기피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이 나간 자리에 국내노동자들을 투입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수기에 어렵게 일감을 받았으나 숙련공이 된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였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도, 과중한 불법체류임금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주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이 노동사목위원회에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자, 5월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내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주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즉, 정부는 과감한 지원으로 국내실업자들이 다시 영세·기피업종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도기를 두어 이주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여 국내산업도 보호하고 실업문제도 해결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귀국하고 싶어도 불법체류임금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들을 위하여 당분간 사면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산재이주노동자는 고용주들이 산재처리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처벌까지 받아야 하므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산재보상을 진행하는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6월 12일에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민원실 각 부처에 필리핀 노동자들과 기타 이주노동자들의 출국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9월 30일에 외무부와 노사정위원회에 이미 출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체불임금을 받는 데 용이하도록 현지 대한민국 공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998년의 합법취업자는 산업기술 연수생, 해외진출기업 연수생 등이 포함되었으나, 사업장에서 철저히 통제하여 실태 파악이 어려워 상담대상은 주로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임금체불이 718건(63%)으로 가장 많았는데, 3D업종 영세사업장은 IMF구제금융관리체제 이후 큰 타격을 받아 도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고의체불인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체불회사를 사법처리하지 않고 임금지급지시명령을 내리는 수준에서 종결처리되고, 회사는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두려워 임금만 해결하여 주었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으로 퇴사하면 잠자

리마저 잃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아도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IMF 이전에 800,000~1,000,000원을 받았으나, 1998년에 500,000~700,000원으로 삭감되고, 국내의 물가상승, 환율 폭등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몹시 어려워졌다.

산업재해는 79건(7%)으로 무리한 작업강요와 언어소통 때문에 안전교육 미비, 영세업종의 낡은 기계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사고의 유형은 주로 프레스기계, 사출기 협착으로 인한 수지절단이 많았으며, 재해자의 대부분 근무일수 3개월 미만의 미숙련 상태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로 산재보험수가의 상향조정과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범칙금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주와 합의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였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재해를 당할 경우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영세업체이므로 해결하기 어렵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셋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법무부에 통지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상담은 94건(8%)으로 요셉의원과 성가복지병원, 제3차 진료기관인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사회사업실 등에 진료의뢰서를 보내 도와주었다. 전반적으로 의료상담이 줄어든 이유는 1997년 5월부터 라파엘 클리닉이 개설되어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격주로 이주노동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여 주었기 때문이었다. 질병해결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던 서울 중앙병원의 자선진료가 경제난을 이유로 중단되는 등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점차 줄어들고 진료비의 상승으로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경제능력이 있어도 사소한 질병까지 무료진료의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경우처럼 의존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도 있었다.

출입국관계는 115건(10%)으로 여권분실과 발급신청 문의, 외국인보호소 수감자들의 도움 요청, 항공권 구입, 기타출국협조 등이었다. 문제점은 첫째, 벌금제도의 모순으로 1998년 1~4월의 제1차 사면기간 동안 체불임금, 출국여비, 산재보상, 항공권 매진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출국하지도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중 일부는 고의적인 범 죄를 저질러서라도 강제출국을 당하겠다고 대응하는 등 벌금제도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 둘째, 경제난 이후 일본으로 밀항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500~7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밀항도중 질식사하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위험이 따랐다. 출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아시아 전체가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당시 남았던 이주노동자들 중 더 어려운 자국의 경제상황과 익숙해진 한국생활 등을 이유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출국과 관련된 상담실의 대외

활동은 첫째, 대 법무부 출국 희망자 협조탄원서 제출(6월 12일)로 필리핀 공동체와 노동사목위원회가 협력하여 사면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사람 중 자진출국 희망자를 위하여 사면기간을 연장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여 7~8월 중 제2차 사면기간을 획득할 수 있었다. 둘째, 출국희망자 경비보조 대상자 추천은 경제난 이후 수개월씩 임금도 못 받고 직장을 잃고, 출국여비도 없이 떠도는 이주민들이 속출하자 파리의방전교회 한국지부가 3~4월 총 51,120,000원을 지원하여 이주노동자상담실에서 추천한 10명이 자기나라로 돌아갔다.

기타상담은 77건(6%)으로 그 가운데 폭행은 주로 회사 내에서 사장이나 한국동료직원들이 저지른 것이 대부분이지만, IMF 이후 사회전반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는 폭행사건이 새로 접수되었다. 이들은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다. 방 계약금 문제는 제1차 사면기간(1988년 1~4월) 중 급작스럽게 출국하여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국내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계약금과 월세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을 빚었다. 절도는 임금체불과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발생하였다. 사기는 국내상황을 잘 아는 중국교포들에게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외환송금과 반출이 제한되어 모아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사건들이 많았다. 또한 친지를 입국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돈을 빼앗긴 사건도 접수되었다.

연수생문제는 30건(3%)으로 연수생 적치금 문제는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매월 이들의 월급의 일부를 강제로 회사에 적치시켜 두는데, 이탈한 연수생들이 출국을 앞두고 자신들의 적치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연수생 관리업체의 횡포 문제 역시 많았는데, 연수생 관리업체들은 고용회사로부터 발생하는 연수생들의 고충을 듣고 이들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회사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였다.

## 2) 1999년 주요활동<sup>97)</sup>

1999년 3월 말 이주노동자는 167,567명이며, 이 가운데 합법체류자는 58,712명(35%)으로 전문직 11,407명(6.8%), 산업기술연수생 31,397명(18.7%), 해외투자기업연수생 15,908명(9.5%) 등이었으며, 불법체류자는 108,855명(65%)이었다. 1999년에 상담한 이주노동자들은 31개국 482명이었고, 1999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불임금문

9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999년 사목방문 보고서.



라파엘 클리닉

보호소 수감자들의 도움요청, 항공권 구입, 기타출국협조 등이었다. 기타상담은 총 39건(전체의 12%)이었는데, 예년 평균 5.5%의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기타상담 중 폭행과 절도·사기 등이 주류였으며, 1999년은 특별히 외국어학원 강사들이 계약위반과 부당대우 등을 상담하였다. 연수생 문제는 30건(3%)으로 1999년에 연수생들의 부당대우에 대한 상담이었고, 회사와 맺은 노동계약 문제보다 한국인 동료 노동자의 욕설과 폭력을 고발하는 사건이었다.

제는 여전히 많아 전체상담의 52%를 차지하였다. 산업재해 문제는 1998년과 비슷하였다. 1999년 9월 현재 전체 상담 중 의료상담 비율은 전체 상담의 16.2%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약 9%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용대상과 도움기관은 1998년과 비슷하였다. 출입국 관계는 1998년처럼 주로 여권분실과 발급신청 문의, 외국인

### 3) 2000년 주요활동<sup>98)</sup>

1999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7개월 동안 불법체류자의 범칙금 사면기간이었으며, 2000년 7월에 이주노동자 기술연수생들에게 실시하던 산업기술연수생 강제적금제도가 폐지되어 본인이 청구하면 지급하도록 되었다. 2000년 7월 당시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25만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력은 64.1%인 16만 6천 명, 합법체류 인력은 35.9%인 9만 3천 명이었다. 2000년(1~10월) 신규상담은 29개국 622건이었다. 1999년 1~12월 상담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경제불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이 일시 줄었다가 국내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다시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년에 비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언어학원 교사들과 기타직종의 합법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계약관계 불이행에 대한 상담, 국제결혼과 기타 국내체류에 대한 불편사항 등을 주로 상담하였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어 다소 해결되었으나, 전체상담의 55.9%라는 큰

9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0년 사목방문 보고서.



직원과 봉사자

비율을 차지하였다. 의료상담은 전체상담의 13.4%를 차지하고, 산재 발생원인과 문제점은 예전과 비슷하였다. 2000년 7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실시하였으나,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재해를 당할 경우 더욱 해결하기 어려웠다. 회사에 산재보

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하고 회사가 거절할 경우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의 날인거부사유서를 접수하여 강제로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기타상담은 142건(22.6%)으로 이주노동자 문제가 점차 복잡하고 전문화하는 경향을 반영하였다. 기타상담은 폭행과 절도, 사기사건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외국어학원 강사들의 계약위반과 부당대우 상담, 국적취득에 관한 상담과 혼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동거남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여성문제 등이 있었다.

연수생들은 연수업체에 배정된 뒤 100,000~150,000원을 매월 적금으로 불입하는 규정 때문에 연수업체를 이탈하는 예가 많았고, 불입하였던 적치금을 찾으려면 본인임금이라도 출국하여야만 찾을 수 있었다. 2000년 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제적금제도를 폐지하면서 본인의 여권만 있으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연수생이었다가 사업장을 이탈한 이주노동자들이 적립금을 찾기 위한 상담이 늘어났다. 배정된 연수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업체변경을 거부하고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한 예도 있어서 상담실이 개입하여 권리를 구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상담실에 연결되기 전 강제로 출국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 4) 2001년 주요활동<sup>99)</sup>

2001년에 총 38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방문하였는데, 나라별로는 필리핀이 180건으로 가

99)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해져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필자 주.

장 많았고, 베트남(165건), 방글라데시(115건), 중국(114건), 페루(101건), 파키스탄(99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유형별로는 992건 가운데 임금문제가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204건), 기타(101건), 산재(54건), 출국(52건) 등이었다. 한편, 1993년 9월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대신학생 조진환과 다른 4명이 이주노동자 5~2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래 중단되었던 한글교실은 2001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과 학생 중심으로 성북구청의 후원을 받아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글반으로 재개되었다.

#### 5) 2002년 주요활동



한글반

2002년 4월 13일부터 이주노동자상담실 자원봉사자 모임을 개최하고, 5월 15일에 종결상담사례 전산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글반은 2002년에 성북구청에서 노동사목회관으로 교육장을 옮겨 계속하였다. 2002년에 상담실을 방문한 40개국의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은 2,090건으로 전

년대비 190% 증가하였다. 체불임금이 8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299건), 항공권(262건), 출국(217건) 등이 뒤를 이었는데, 5월만 놓고 보면 이주노동자 자진신고와 출국이 맞물려 항공권 구입이 122건으로 체불 115건보다 많았다. 종결처리된 상담은 총 1,754건으로 총 지난해 987건보다 178%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146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전년에 비해 신규상담이 감소하는 원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각 지역 상담실들이 증가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자진출국대상노동자들이 잠적한 것 등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02년 7월 15일자로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노력들은 2003년 7월 31일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불법체류자합법화 조치 등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00)</sup>

#### 6) 2003년 주요활동

한국정부는 1992년 6월에 불법체류자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출국기한 연기조치를 처음 시행한 이후 1994년 5월 31일까지 4차례 출국기한을 연기하였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에 외국인력제도 변화를 모색한 이전까지 자진출국, 출국기한유예 등 자진출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출국기한 유예조치를 반복하였다. 2002년 3~5월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2003년 3월 말까지 1년간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는데,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 불법체류자는 신고 대상자 27만 6천 명 중 93%이었다. 2002년 11월에 불법체류자 모두 출국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시출국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1년간 출국을 재유예하였다.

이와 같이 1992년 이후 매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유예조치를 반복함으로써 불법체류 분위기를 조장하고, 다른 유예조치를 기대하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급증하였으며, 입국 후 출국을 기피함에 따라 불법체류가 급증하였다. 게다가 한국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인식이 만연하여져 한국에서 장기불법체류로 인한 기대소득이 높아져 인력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중개료가 상승하고, 과도한 송출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신분약점을 기화로 임금체불, 폭

100) 부록 3에 전문 수록.



홍 미카엘 신부와 결혼이민여성

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에 기존 불법체류자를 체류기간별로 구분하여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약 22만 7천 명 중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약 16만 2천 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업종에서 취업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2003년 10월 31일까지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고 2003년 11월 15일까지 법무부에 국내체류를 신고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종에서 총 체류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간 취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약 6만 5천 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업종에서 취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서 2003년 10월 31일까지 취업확인서,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자진출국하면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하였으며, 취업허용 업종이 아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업허용 사업체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2003년 3월 31일 당시 4년 이상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등 합법화 대상이 아닌 이에 대하여 2003년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sup>101)</sup> 정부의 의지대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단속이 시작되면 자진출국대상 불법체류자들이 숨었으며, 처한 문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합법화조치 이주노동자들도 새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100%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1) 유길상 외, 저속련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4, 22~25쪽.

행, 감금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여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훼손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장기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정주화, 결혼, 자녀교육,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불법체류자 문제가 최대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

고충상담 47개국 1,547건 가운데 1,492건을 종결하였다. 베트남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124건), 페루(77건), 러시아(61건), 중국(34건), 태국(3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가 총 82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총 812건을 처리하였으나, 회사부도나 임의폐업, 사업주 도피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례도 있었다. 산재는 상담접수 34건, 종결 57건이었으며, 의료상담은 접수 161건, 종결 188건이었는데, 뜻 있는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 출입국 의뢰 건수는 총 47건, 종결 58건이고, 기타상담종결 건수는 항공권 235건, 여권연장 23건, 폭행 3건, 체포 16건, 쉼터 4건, 교통사고 4건, 주택보증금, 사기, 송금, 사망 4건 등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을 취득하였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고충을 겪었다. 즉, 노동계약 때와 다른 사주의 임금조정,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강제갈취 등 새로운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 노동고충상담과 아울러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 신앙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며, 신앙상담, 권리보장과 범죄 예방상담 등을 위한 사목적인 배려도 병행되도록 상담방향의 전환이 요청되었다.

한글교실은 매주 일요일에 10명의 교사가 기초반, 초급반, 초·중급반, 중급반, 고급반 등 5개 반으로 운영하였고, 봄·가을 소풍과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궁, 국립국악원 공연 관람 등을 시행하였으며, '보문동 한글학교'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2003년 1월 5일에 중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설날잔치를 베풀고, 6월 29일에 중국노동자상담실인 가리봉이주노동자의 집을 개소하였다. 9월 11일에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으로 필리핀, 베트남, 페루, 칠레, 에콰도르, 중국, 러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이주노동자 2,000여 명이 모여 한가위 축제인 'Work Together for a Better World'를 개최하였다. 제1부 미사는 도요안 신부가 주례하였으며, 스페인어는 도밍고 신부, 베트남어는 팜 신부, 영어는 그레이스 봉사자와 윤성희 수사가 각각 담당하였다. 제2부 공연(전통춤, 전통노래, 장기자랑)에 이어 제3부는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지원으로 음식한마당을 개최하여 한국(불고기, 김치, 송편, 김밥), 페루(Cebiche), 볼리비아(Picante de pollo), 베트남(Chao Gio; Spring Roll, Barbecue, Pansit) 등 다양한 음식물을 선보였다. '이주노동자고용법률'이 공고된 직후이어서 2002년보다 참석인원이 적었으나, 여러 나라의 전통공연과 음식을 통해 그리운 고향의 정서를 잠시나마 향유할 수 있었으며, 해마다 실시되는 한가위축제는 이국생활에 지친 그들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주는 꼭 필요한 행사로 평가되었다.



한가위축제

7) 2004년 주요활동<sup>102)</sup>

1991년 이후 2004년 8월 16일까지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이었던 산업연수제도는 불법 체류·송출비리·인권침해 문제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3년 8월 16일에 제정·공포된 이주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여 8월 31일에 최초로 94명의 필리핀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 외국인력의 도입과 취업알선의 주체가 민간기구에서 국가기관인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함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정리·예방하고 외국인력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실천에 옮긴 것이다. MOU(국가 간 협약) 허용대상국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4대보험 혜택을 주고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에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대로 지속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였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합법적 구인과 구직, 타당한

10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 2005년.

사유로 퇴사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사업장 변동신고 등을 규정,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잔류하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상당수가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한국의 계속되는 불경기로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글반은 교사 13명이 총 6개 반을 구성하여 매주 일요일에 수업하고, 이 해에 KLPT 한국어인증시험 접수처로 선정되었다. 한편, 9월 28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과 운동장에서 이주노동자 1,500명이 참석하여 이주노동자 한가위축제를 거행하였다. 2004년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총 38개국 1,163명이었으며, 나라별로는 페루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23건), 태국(172건), 몽골(117건), 콜롬비아(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임금문제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256건), 의료(247건), 항공권(169건), 퇴직금(51건), 체포(46건), 산재(42건) 순이었다. 종결 처리된 사건은 임금(299건), 의료(222건), 항공권(171건), 퇴직금(74건), 체포(37건), 산재(30건) 등 총 1,052건이고, 수령액은 합계 364,825,825원이었다.<sup>103)</sup>

#### 8) 2005년 주요활동<sup>104)</sup>

2005년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이동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조정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2005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31,826명이고 고용특례자는 32,742명, 산업연수생은 72,000여 명 정도로 2005년 7월에 비하여 고용허가제와 특례자를 통하여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연수생을 통한 취업은 감소하였다. 2005년 송출국가로 선정된 6개국은 필리핀·베트남·몽골·태국·스리랑카·인도네시아 등이며, 송출국가 확대예정국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캄보디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미얀마·네팔·이란 등이 MOU 체결여부를 검토하였다.

2005년의 고충상담은 총 41개국에 1,199건이 접수되었으며, 베트남이 264건으로 가장 많았

103) 상담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상담 국가별 유형에서 방글라데시 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10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월례회의 발제 요약, 2005년.

고, 페루(247건), 몽골(228건), 태국(128건), 콜롬비아(47건), 중국(43건), 필리핀(4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임금(365건)이 가장 많고, 의료(273건), 항공권(191건), 산재(71건), 퇴직금(62건), 비자(47건) 등이었다. 총 1,225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이어 임금(380건), 의료(255건), 항공권(184건), 퇴직금(76건), 산재(61건), 체포(44건) 순이었다. 2005년 2월 6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이주노동자 1,200여 명이 참석하여 설맞이 이주노동자잔치를 개최하고, 이어 9월 18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이주노동자 한가위잔치를 개최하였다.

#### 9) 2006년 주요활동<sup>105)</sup>

2006년 말 이주노동자는 408,635명으로 합법취업자 63,690명, 산업연수생 73,802명, 불법체류취업자 188,178명, 중국동포 82,965명으로 분류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그동안 합법취업노동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문제는 사업장 변동이었다. 변동 사유가 인정되어 이동할 수 있던 사례도 있었으나, 변동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이탈하여 변동신고, 구직기간이 초과되어 불법체류자가 되는 예도 적지 않았다. 합법화조치 기간에 잠시 감소하던 불법체류노동자는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합법적인 이주인력 고용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주인력의 선발과 도입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인력송출기관의 잘못된 관행, 인신매매나 밀입국을 주선하는 중개인들의 활동 때문이었다. 또 당장 귀국할 수 없는 불법취업노동자 개개인의 사정도 불법체류노동자가 증가하는 큰 원인이었다.

2006년의 고충상담은 40개국(41)이 접수되었는데, 베트남이 340건으로 가장 많고, 몽골(217건), 페루(186건), 태국(158건), 필리핀(60건), 중국(45건), 콜롬비아(36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가 390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260건), 기타(219건), 항공권(82건), 산재(59건), 사업장변동(49건), 출국(47건), 퇴직금(35건) 순이었으며, 종결처리된 건수는 1,189건으로 의료가 36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임금(330건), 기타(187건), 항공권(73건), 출국(50건), 사업장변경(48건), 체포(36건), 퇴직금(35건), 산재(34건) 등의 순이며, 총 수령액은 259,020,455원으로 산재보상금(123,754,300원), 체불임금(99,575,445원), 퇴직금(26,315,000원), 기타(9,375,710원) 등이었다.

2006년 1월 22일에 동성고등학교강당에서 이주노동자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설맞이 이주노동자 잔치, 10월 1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이주노동자 한가위잔치를 각각 개최하였다.

10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6년 이주사목 월례회의 발췌요약.

한편, 7월 2일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문화행사로 국립국악원에서 거행된 ‘함께 가요, 아시아’ 프로그램에 이주노동자 40명이 관람하고, 12월 7~11일에 경북공역 내의 전시관에서 한국노동문화원이 주최하는 제1회 이주노동자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4월 9일에 노동사목회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글반은 2006년에 사랑의 열매가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9일에 한국 가톨릭교회는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참여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sup>106)</sup>

#### 10) 2007년 주요활동<sup>107)</sup>

2007년의 고충상담은 27개국에 총 976건이 접수되었으며,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몽골 183건, 페루 163건, 태국 155건, 필리핀 80건, 중국 32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의료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168건), 항공권(99건), 산재(44건), 퇴직금(39건), 출국(24건) 순이었다. 종결처리된 1,068건 가운데 의료가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226건), 기타(193건), 항공권(96건), 산재(65건), 퇴직금(45건), 출국(28건) 순이었다. 2007년 2월 11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설맞이 이주노동자잔치를 개최하여 1,5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하였으며, 8월 30일~9월 3일에 경북공역 내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노동문화원 주최 이주노동자 예술작품 전시에 참가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10여 만 명 정도이었고, 상담업무가 체불임금 등에 집중되었으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다소 향상되고, 경험을 통한 현장 적응력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상호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초기에는 상담실이 몇 개소에 불과했으나, 각 종교와 각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이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났다. 이주노동자상담실은 국적·종교와 무관하게 이들의 어려움에 함께 하자,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져 상담유형 또한 복잡하여졌다. 이주노동자상담실은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사목적인 지원을 하여 국가별 공동체의 결성이 활발해졌으며, 이들의 특성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106) 부록 3에 전문 수록.

10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이주사목 월례회의 발췌요약.

국가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폭넓은 이해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상담실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국가 또는 기관에서 개최하는 이주노동자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산재문제를 처리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2007년에 고용허가제는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첫걸음으로 장시간 혼란스러웠던 고용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사업과 민간종교단체의 의료보험적용 등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정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산재환자 귀국지원

그러나 향후 보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은 기본적인 언어교육이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교육, 사업장 변동신고기간 홍보강화 등이다. 이는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로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 한국사

회는 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복지 등에서 체계적인 제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2007년 당시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약 50만 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노동환경과 인권침해의 실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2007년에는 그 당시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인권의식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지 못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동안 외국인력을 노동력의 관점만이 아닌 사람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표방하면서도 생산요소로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강조되었을 뿐 사회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주정책의 문제는 향후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할 과제인 만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대두되었다.

## 2.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 축성식

2000년대에 의정부시를 비롯하여 양주·동두천·과주·포천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졌는데, 서울의 이주노동자상담실은 거리문제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인 이주노동자들의 검거와 수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찾아올 수 없었다. 노동사목위원회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을 위하여 의정부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먼저 2000년 3월 15일에 용동진 신부가 경기북부지구 사제회의에 참석하여 의정부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개소하는 데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5월 19일에 강우일 주교가 노동사목위원회를 방문하여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의 개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9월 8일에 의정부시 녹양동성당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을 개소하여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은 9월 10일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보상처리, 임금체불, 의료서비스, 상담실 공간이용 등의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합편익(Patrick J. Cunningham, S.S.C., 1967~ ) 신부가 소장, 이미숙(글라라)이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필리핀 선교사 줄리엣이 매주 목·금요일에 봉사자로 참여하였다.

2000년 7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충상담을 위하여 내방한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9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17건, 산재 4건, 의료 3건, 기타 2건 등 총 26건을 상담하였으며, 이 가운데 종결처리된 것은 산재 2건, 의료 2건, 기타 1건 등 총 5건이었다. 2002년 4월에 방글라데시 등 총 7개국에서 20명이 내방하였는데, 18건이 임금체불, 산재와 의료가 각각 1건이었으며, 이 중 12건이 종결 처리되었다. 2002년 7월은 임금체불 23건, 산재 10건, 의료 1건, 기타 3건 등이었다.

2003년 고충상담은 총 1,032건에 1,436명으로 유형별로는 체불임금이 61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94건), 출국·여권(90건), 기타(80건), 고용허가(54건), 산재(40건), 환불(35건) 순

이었다. 국가별로는 총 26개 국가에서 필리핀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국(193명), 방글라데시(191명), 인도(84명), 스리랑카(51명), 우즈베키스탄(38명), 터키(36명) 순이었다.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충상담은 총 798건으로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35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용허가(173건), 의료(60건), 사업장변동(56건), 기타(49건), 산재(47건), 출국·여권(35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총 24개 국가에서 필리핀이 18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178명), 방글라데시(87명), 우즈베키스탄(39명), 인도(37명), 나이지리아(28명) 순이었다.<sup>108)</sup>

### 3.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sup>109)</sup>

1998년 3월 19일에 필리핀외방선교회 글렌 조반니 자론(Glenn Giovanni Jaron, M.S.P.) 신부가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두 번째 동반자로 파견되었다. 서울대교구가 1999년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5-9번지 건물을 필리핀외방선교회가 관리하게 하였으며, 같은 해 필리핀외방선교회가 살바도르 동 마르카이다(Salvador Dong Marcaida, M.S.P.) 신부, 2001년에 마르첼리노 로살레스(Marcelino Rosales, M.S.P.) 신부를 파견하였다.<sup>110)</sup>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는 자체 상담능력이 부족하여 명동이주노동자상담실의 협조를 받아 해결하였다. 당시 출입국관리법은 한국에서 태어난 필리핀 아기들을 즉시 필리핀으로 송환하도록 하여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가 강력한 항의서한을 보내고 목동 이민국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아기들은 태어난 지 1개월 또는 그 이후에 필요한 서류나 여비를 갖춘 뒤 보호자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또한 중대한 사고일 때 가톨릭교회가 운영하는 병원 사회복지과나 적십자병원, 혜화

108) 의정부교구는 2004년 6월 24일자로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었는데,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2000년 7월 18일~10월 30일, 2002년 4월과 7월, 2003년 1~12월, 2004년 1~8월의 상담통계뿐이어서 다른 자료들을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에 요청하였으나, 남은 자료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실이 2008년 6월 26일자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주요사업은 1) 상담사업: 노동문제, 의료문제, 국제결혼 여성문제 상담. 2) 교육사업: 한국어교육, 노동법(고용허가제 등)교육, 컴퓨터교육, 산업안전교육. 3) 방문사업: 산재환자, 공장·기숙사 방문,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정방문. 4) 의료사업: 무료진료사업(월 2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을 위하여 의료공제회를 통한 의료지원사업, 민간지원단체(병원), 정부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 각종 예방접종 사업. 5) 신앙활동: 매주일 미사(영어, 베트남어 미사). 6) 통역사업: 이주민의 소통을 위한 통역지원. 7) 문화사업: 문화유적지 답사, 캠프, 소풍 등 재충전을 위한 행사 지원 등이며, 방문·상담건수는 연간 10,000명이고, 상근인력은 6명이었다.

109) 피정과 성지순례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 생략.

110)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 신부, 같은 글.

동 라파엘 클리닉 등을 통해 할인 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sup>111)</sup>

한국남성과 결혼한 많은 필리핀여성들이 가정문제로 자녀들과 함께 필리핀공동체에 은신처를 요청하였다. 필리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돈을 버는 동안 자녀들이 머물 곳이 절실하여 글렌 신부가 후원자의 도움으로 베들레헴 어린이집을 시작하여 2003년 8월 12일에 8명의 어린이들이 입주하였다.<sup>112)</sup> 2003년 4월에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문제에 대하여 정부단체, NGO와 협력하기로 하고, 12월 4일에 필리핀대사관에서 개신교 목사, 성직자, 수도자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진신고 대상 3000명에 대한 기간연장 가능여부를 논의하였다.<sup>113)</sup> 2004년 1월에 체불, 퇴직금, 노동부 진정 등 진정한 폭주와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인원부족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지자, 법무법인 정수의 오종필 노무사와 계약하였다.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자, 2005년 7월에 고용허가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114)</sup> 혜화동공동체에 속하던 마석공동체가 독립하여 의정부교구의 도움으로 센터를 설립하여 의정부교구장 이한택 주교가 축성하였으며, 살바도르 동 마르카이다 신부가 마석의 필리핀 천마산 공동체의 첫 동반자가 되었다.<sup>115)</sup> 2006년 3월에 고 신부가 부임하였다. 5월부터 불법체류자단속이 심해져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이 구타당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하여 법무부 등에 항의자료로 사용하였다. 6월에 부친 필리핀 공동체를 개소하였으며, 8월에 성북동사무소가 이주민 위한 한국어강좌를 개최하여 참여하기 시작하였다.<sup>116)</sup>

2006년 9월 17일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수호성인인 마닐라의 산 로렌조 루이즈(San Lorenzo Ruiz de Manila)를 기념하여 가와드 산 로렌조(Gawad San Lorenzo)상을 제정하여 롤란도 마그티바이(Rolando Magtibay)가 처음으로 수상하였으며, 필리핀 공동체를 도운 6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9월 29일에 장충체육관에서 재한필리핀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2천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0월 2일에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성가잔치를 거행하였다.<sup>117)</sup> 필리핀의 테오도로 바카니(Teodoro Bacani) 주교가 10월에 필리핀 가

111) 같은 글.

112) 같은 글.

113) 필리핀 공동체, 2003년 업무보고.

114)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 신부, 같은 글.

115) 같은 글.

116)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2006년 업무보고 .

117) 같은 글.

톨릭 공동체를 방문하여 11월 12일에 한국 엘 사다이 기도회 창립 14주년 기념미사를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집전하였다.<sup>118)</sup> 12월 6일에 필리핀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기 위하여 라파엘 클리닉의 김 박사, 안규리 박사, 고찬 신부 등이 필리핀을 방문하였다.<sup>119)</sup>

2007년 2월 4일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헌장과 규칙이 승인되고, 4월 8일에 임원들을 선출하였다.<sup>120)</sup> 4월부터 아름다운재단 변호사 2명이 매주 금요일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를 방문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하기 시작하였다.<sup>121)</sup> 6월 16일에 필리핀외방선교회 소크 메시오나(Soc Mesiona, M.S.P.) 총장신부가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를 방문하였으며, 6월 20일에 필리핀 이주사목 담당 칸틸라스(Cantillas, S.D.B.) 주교가 가톨릭회관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다. 6월 21일에 글렌 신부가 주교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발표하였다.<sup>122)</sup> 8월 7일에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하여 글렌 신부가 교육방송과 인터뷰하였으며, 8월 19일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혜화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지급업무를 지원하였다.<sup>123)</sup>



연주회를 마치고

9월 22일에 필리핀의 로살레스(B. Rosales) 추기경이 한국을 방문하여 23일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미사를 집전하였다.<sup>124)</sup> 이어 라파엘 클리닉을 방문하고, 필리핀에서 초대된 필리핀 예술가들의 연주회에 참석하였다. 24일에 판문점과 파주 소재 필리핀인 전쟁기념탑을 찾았으며, 필리핀 신부들과 미사를

봉헌하고 영적대화와 만찬을 나누었다. 25일에 병원과 공장, 절두산성지를 방문하고 출국하였다.<sup>125)</sup> 10월에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새 동반자로 알빈(Alvin B. Parantar, M.S.P.) 신부와 프

118) 같은 글.

119)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2006년 업무보고 .

120)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 신부, 같은 글.

12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5월 회의록.

12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7월 회의록.

12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9월 회의록; 2007년 10월 회의록.

124)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10월 회의록.

레디 페르멘틸라(Fredy Permentilla)와 로베르트 모이세스 올라비데즈(Robert Moises Olavidez) 신학생 등이 한국에 들어왔으며, 12월 20일에 글렌 신부가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를 떠나고 알빈 신부가 혜화동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동반자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필리핀공동체의 책임자가 되었다.<sup>126)</sup>

#### 4. 남미공동체<sup>127)</sup>

##### 1) 2001~2003년 활동

멕시코인 양진홍(Gerardo Cabral, M.G.) 신부가 자양동성당에서 남미노동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과외외방전교회 홍세안 신부가 2001년 5월 23일부터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남미노동자들의 고충상담을 시작하고, 6월부터 동두천성당·금촌성당 등에서 남미노동자들,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01년 9월 9일부터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매월 둘째 주일 11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혼인성사와 세례성사도 집전하였다.



페루댄스페스티벌

수녀가 시간제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남미공동체가 발견되자 남미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이 찾아왔으며, 원래 가톨릭 신자였지만 한국에 와서 개신교로 개종하였던 이들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활동대상이 많아지고 다양하여지자 2002년 3월부터 위로의 성모의 수녀회의 스페인인 고연수(Maria Teresa Collado, N.S.C.)

125) 같은 글.

126)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 알빈 신부, 같은 글.

127) 피정과 성지순례 등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 생략.

2003년 1월부터 첫째 주일 진접성당, 둘째 주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셋째 주일 금촌성당, 넷째 주일 동두천성당에서 각각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하였다. 고연수 수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매월 한 번씩 정기모임을 조직하고, 봉사자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교육하였다. 2003년에 각 지역 남미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공동체 책임자들을 선출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불법노동자들이 단속을 두려워하여 조직하기 어려워졌다.<sup>128)</sup>

## 2) 2004년 활동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들이 즉시 출국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떠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구속된 남미노동자들이 출국하기 전까지 밀린 임금을 받고, 빨리 출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뒤에 합법비자를 취득한 노동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의료비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무료진료소나 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용을 탕감받게 하거나 통역 등을 도와주었다.

2004년 한 해 동안 절도나 마약 때문에 단속된 콜롬비아, 페루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족들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 받았기 때문에 구치소나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편지와 소식지 등을 전달하고, 호텔에 보관된 이들의 짐을 출국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찾아 주고 전달하였다. 3개월마다 정기로 발행하는 소식지 『Comunhispano』를 2004년에도 4회 발행하였다. 애초 800부를 발행하였으나, 점차 줄어 12월에는 500부만 발행하였다. 남미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단속으로 인하여 숨어 지내는 이들을 만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004년 역시 2003년처럼 남미공동체를 위한 스페인어 미사를 진접성당·노동사목회관·금촌성당·동두천성당에서 차례대로 봉헌하였다. 2004년 10월에 의정부교구가 신설되어 남미공동체가 미사를 집전하는 지역 중 3지역이 의정부교구에 속하였지만, 계속 그 지역에서 활동하기로 하였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남미노동자들의 요청으로 부천에서 스페인어 미사가 집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9월 12일부터 부천 삼정동성당에서 끈솔라따선교수도회의 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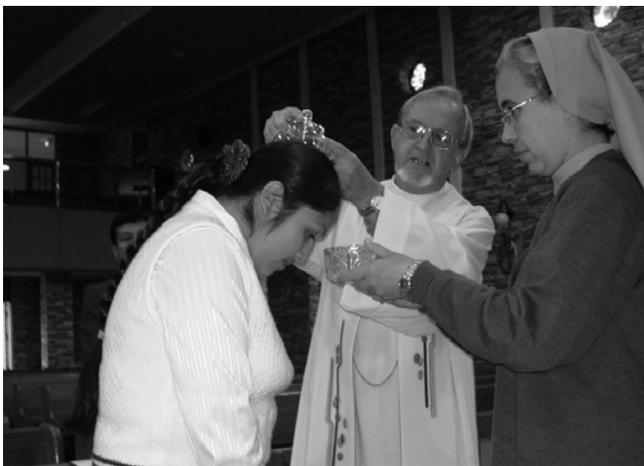
128) 남미 공동체 홍세안 신부, 2003년 보고서.

우제니오 보아테야(Eugenio Boatella, I.M.C.) 신부가 매월 둘째와 넷째 주일에 스페인어 미사를 봉헌하며, 도미니꼬회 수녀와 성가정의 가꾸친 수녀들이 봉사하였다.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기혼자가 많은데, 부부가 잠시 헤어져 한국에 있는 동안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일이 많고, 대부분 오랜 이주생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혼자로 한국에 온 이 중에는 주로 동거하는 이들이 많으나,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남미여성 가운데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방편으로 미국남성, 특히 푸에르토리코나 남미출신 미군과 동거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폭력 때문에 헤어진 남미여성도 많았다. 남미 노동자들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지만,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 가톨릭 신자로서 소속감이 부족하고, 첫영성체를 하지 못한 이들도 많아 물질적으로 이익되는 집단이나 교파로 옮기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신자들도 다수 있었다.<sup>129)</sup>

### 3) 2005~2006년 활동

2005년에 합법체류기간이 끝나 8월 15일부터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은 남미공동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합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 상담실 업무가 줄었는데, 출국할 노동자들이 떠나기 전에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주요업무이었다. 2005년에도 절도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콜롬비아나 페루인들이 급증하였다. 대부분 절도하기 위하여 단체로 한



창현성당 세례식

국에 들어온 사람들로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하여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이들을 면회하고 편지와 소식지, 주일미사 자료 등을 전달하였다.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잡힌 경우는 그 지역의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제나 수녀에게 방문을 요청하였다. 2005년도 예년처럼 4개 지역을 순회하며 주일

129) 남미 공동체 홍세안 신부, 2004년 보고서.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모든 곳에서 8월부터 미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줄었으며, 거의 모든 남미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sup>130)</sup>

2006년 4월부터 국제결혼한 여성들에게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지만, 열성이 부족하여 몇 개월밖에 못하였다. 11월 9일부터 국제결혼한 남미부인들이 모여 성서나눔을 다시 시작하였다. 2006년에 남미인들이 많이 돌아갔으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았다. 6월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콜롬비아, 페루인들을 가족과 연계하여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7월에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페루인들이 많이 체포되었다.<sup>131)</sup>

#### 4) 2007년 활동

2007년에도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계속 입국하여 문제가 많았고,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였다가 체포된 페루인들이 귀국하는 데 항공료가 너무 비싸 어려움을 겪었는데, 항공사로부터 할인협조를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화성보호소에 있던 남미인들이 출국하도록 하여 주었다. 그러나 단속이 심하여 출국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항공 예약건이 많아졌다. 콜롬비아인 황(Juan Pablo de los Rios) 신부와 구티에레즈(Jair Gutierrez) 신부가 의정부교구의 남미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에서 6월부터 매월 2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동두천성당과 진접성당도 매월 스페인어 미사를 2대 봉헌하였다. 남미공동체를 구성한 뒤 미사뿐 아니라 피정, 성지순례, 한국 남자와 혼인한 남미 여성들의 모임, 교리 등 여러 가지 사목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은 의료문제로 공동체를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신에 체불임금은 줄었다. 8월에 페루에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는데, 남미공동체가 9월에 드리는 모든 스페인어 미사 헌금, 지진희생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두천에서 축구시합을 개최하고 남미 음식을 판매하여 모금한 3,069달러를 페루 이카(Ica)교구로 보냈다. 2007년의 남미노동자 미사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에서 봉헌하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일 미사, 의정부교구의 매월 첫째 주일 남양주시 진접성당, 매월 둘째와 넷째 주일 동두천 성당, 매월 셋째 주일 파주시 금촌성당 미사 등이며, 인천교구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일에 부천시 삼정동성당 미사 등이었다.<sup>132)</sup>

130) 남미 공동체 홍세안 신부, 2005년 보고서.

13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6년 이주사목 월례회의 요약.

132) 남미 공동체 홍세안 신부, 2007년 보고서.

5. 가리봉 이주노동자의 집<sup>133)</sup>

축성식

2002년 1년간 이주노동자상담실을 방문한 이주노동자 2,090명 중 중국동포는 144명으로 전체의 1/14.5에 불과하였으며, 2003년 1월의 내담자는 260명 가운데 중국동포는 18명으로 전체의 1/15에 불과하여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 30만 명에 비하여 내담자가 매우 적었다. 당시 가리봉동 일대는 조선족 노동자들을 위하

여 많은 목사들이 일하였는데, 전체 이주노동자 중 약 반 정도가 조선족이고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어 적극 개입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가 중국인 한족과 조선족들의 밀집지역인 가리봉동시장 가운데에 상담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가리봉1동 126-49번지 25평 다가구 주택 201호는 살레시오회 재단법인 명의로, 202호와 301호는 서울대교구 명의로 매입하고 등록하였다.<sup>134)</sup> 처음에 ‘조선족공동체’라고 하였다가 다시 ‘중국동포 나눔의 집’으로 고쳤으나, 중국동포들인 조선족 뿐 아니라 한족도 많이 살고 배타적인 면이 짙다는 가리봉동시장 내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가리봉 이주노동자의 집’으로 명하였다. 2003년 6월 29일에 김운희 주교가 축성하였다.

2003년 5월 7일에 중국에서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우리말과 중국말에 능통한 김길자(테레사)를 실무자로 고용하였으며, 7월에 전단지, 현수막과 명함, 조선족을 위한 사이트 등에 등에 알린 뒤 살레시오수녀회 노공순(비비아나) 수녀, 살레시오회의 김정수(프란치스코) 신부가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노공순 수녀 대신 권오희(세리피나) 수녀가 근무하였다. 이주노동자상담실에서 보낸 중국인 노동자들을 상담하고, 7월 25~28일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40명과 지도교수, 선배의사들이 봉사진료 팀을 구성하여

133) 가리봉 이주 노동자의 집 김정수 신부의 2002년 이후 보고서와 노동사목위원회 월례회의 등에서 발췌 요약. 미사와 피정, 소풍 등 연례행사 생략.

134) 김정수 신부가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황명덕 신부에게 보낸 2003년 5월 7일자 조선족 공동체 집 마련을 위한 협조요청 편지. 상담실은 살레시오회의 재단법인 명의로 되었으나, 직원급료는 서울대교구가 지급하였다.

가리봉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장애인복지관 식당과 복도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가리봉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투약하였다. 또한 한족을 위한 한글반을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조선족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강의하였다.



귀국지원

2003년 7~12월에 상담실을 찾은 이들은 조선족 57명, 한족 109명, 기타 4명 등 총 170명이었으며, 170건 가운데 125건, 즉 73%를 해결하였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아 53건이 접수되어 29건을 해결하였고, 적금(50건 접수, 39건 해결), 여권(17건 접수, 15건 해결), 의료(14건 접수, 14건 해결), 취업(11건 접수, 8건 해결) 순이

였다. 6~7월에 조선족들이 한족에 비하여 많이 찾아왔지만, 10월에 고용허가제가 발표되면서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는 한족이 많았는데, 이들은 연수생으로 있을 당시 적금과 통장에 입금된 임금을 찾기 위하여 주로 찾아왔다.

2004년 1월에 적금을 받는 데 필요한 통역을 하여 주고, 10~20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를 적발하여 환불하여 주었다. 2월부터 한글반을 시작하여 3월부터 초급·중급·고급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1월부터 주일 한글반, 컴퓨터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자에게 차비를 지원하였다. 2004년 상담은 한족 148명, 조선족 48명 등 196명이 찾아와 해결 101건, 미해결 105건이었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아 140건을 접수하여 59건을 해결하였는데, 회사부도 또는 일을 시켰던 팀장이 임금을 수령한 뒤 도주하거나 공장장이나 사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의 명목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서 전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약한데다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등으로 미해결이 많았다. 이어 기타(40건 접수, 28건 해결), 의료(13건 접수, 11건 해결), 산재(3건 접수, 3건 해결) 등이었다.

2005년 3월에 한족 위주로 상담실을 운영하려면 중국인 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애국교회, 지하교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5월에 한족들이 찾아와 교리를 배우기 위하여 한족 신부와 만나기 시작하고 중국어 성경, 성가책을 비치하여 6월 첫 주에 한족 3명, 둘째 주에 8명이 예비신자 교리에 참석하였다. 11월 첫째 일요일에 중국인을 위한 미사를 중국인 사제 2명이 집전하여 중국인 20명, 한국인 20명 참석이 참례하였는데, 중국신문인

『신화보』에 홍보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2005년 상담은 304건이었으며, 연초인 1~3월에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고, 8월 15일에 자진출국 기한을 설정하여 그 전 3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한족이 많아졌으며, 연말에 정리하고자 하는 내담자가 늘었다. 총 304건 가운데 한족 162명, 조선족 134명, 기타 8명이고, 체불임금 136건, 기타 119건, 의료 29건, 항공권 18건 순이고, 252건 해결, 미해결 34건, 진행 중인 사건 18건 등이었다.

2006년 8월부터 말씀의 선교 수도회(신언회)의 중국인 사제가 주일마다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하고, 10월부터 중국인들끼리 모임을 구성하여 활성화하였다. 한글반의 봉사자와 교재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선정한 교재를 중심으로 한글수업을 재개하였다. 12월 19일에 글라렛수도회 중국인 장입덕 신부가 방문하여 주일미사를 함께 봉헌하였다. 2006년에 접수된 상담은 총 210건, 월평균 18건으로 2005년에 비하여 줄었는데, 2005년은 불법체류자들이 출국할 때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2월부터 장입덕 신부가 중국인을 위한 교리를 시작하였다. 4월 13일부터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한글반 공부를 시작하여 월, 수, 금요일에 8~9명씩 참석하였다. 2007년에 접수된 상담은 총 310건, 월평균 26건으로 2006년에 비하여 많아졌는데, 가정불화, 고부갈등, 부부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인한 이혼문제 등 가정문제 상담이 많아졌고, 한족여성들의 한국어 교육문제 상담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족 198건 조선족 110건, 기타 2건이었고, 상담내용은 기타 175건, 임금체불 105건, 의료 21건, 항공 9건 등으로 250건 해결, 39건 미해결, 21건이 진행 중이었다.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한족여성들을 위한 한글공부를 월, 수, 금요일 주 3회 진행하고, 주일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주일에 수업을 따로 하였다. 중국인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보다 많아 범법확률도 높아 영등포구치소의 외국인수감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조선족과 한족으로, 특히 한족은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주 1회 수요일에 면담하고 도와주었다. 2007년 당시 중국인 천주교신자가 서울에 약 600~8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문화혁명 이후 신앙생활이 약화되었다고 여겨지는데다가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중국인성당이 없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6. 태국공동체<sup>135)</sup>

추석행사

2002년 10월 8일에 태국주교단 이주노동자와 피난민위원회가 제 1차 선교사로 농(Nhong), 2003년 11월 29일에 제2차 선교사로 캄 폰(Khompon Sangsaigaew Rosa)을 파견하였다. 태국에서 파견된 평신도 선교사는 태국주교단 이주노동자와 피난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태국 노동자의 99%가 불교도인 점을 고려하여 종교를 초

월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고층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 12월 5일의 국왕생일에 태국노동자 10명과 베다니아 집에 모여 고향음식을 나눔으로써 캄폰이 기획한 태국공동체 신년행사를 시작하였다. 캄폰이 태국노동자들에게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상담실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노동법과 관련된 상식과 노동자 권리를 설명하고, 각자 안고 있는 이국생활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었다.

2004~2005년은 외국에서 휴일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왕생일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 국왕생일 경축과 태국 신년축제인 송크란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1월 2일에 행사를 거행하기로 하고, 2005년에 노동사목회관 6층에서 두 번째 신년행사를 치렀다. 행사 전에 미리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태국공동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당일에는 체비뽀기를 하여 입장권 구입자들에게 금목걸이 같은 경품을 나누어주었다. 여자 봉사자들이 준비한 음식 또한 참가자들의 미각을 자극하며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느끼도록 하여 주었다. 행사장을 찾은 태국인들은 약 200여 명 정도로 기대 이상이었고, 기부금은 약 7,000,000원 정도로 도움이 절실한 태국인 환자들의 치료비와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2006년 1월 2일 국왕생일 축하행사에 약 100여 명이 참가하여 약 4,000,000원을 모금하였다. 2007년에는 겨울에 모이는 것이 힘들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년행사를 4월

13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태국공동체, 2008년 업무보고서.

22일로 조정하고, 허윤진 신부가 태국공동체 하례식에 참여하여 종교를 초월하여 강복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 상담실을 소개하고, 노동교육, 게임, 태국음식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4,000,000원을 모금하였다.



송크란축제

한편, 2007년에 약 1,000여 명의 태국노동자들이 안산시에서 개최한 송크란축제에 참가하여 태국문화를 소개하였으며, 다른 상담실과 공동으로 태국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었고, 2008년 4월 13일에 안산시 화랑공원에서 개최된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 송크란축제에 참여하였다. 2008년 5월 4일에 노동사목회관에서 개최한 태국공동체 신년행사에 80여 명이 참석하여 약 500만 원을 모금하였다. 태국음식 나눔과 태국전통게임, 태국이주노동자 교육을 하였다. 태국이주노동자 교육은 P.P.T. 자료로 상담실에서 다른 경우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노동사목위원회 이주사목담당 도요안 신부와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소속 태국인 피터 신부가 참석하였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노동사목회관 5층 성당에서 지극히 거룩한 구속주회 태국인 이한울(베드로) 신부가 태국어미사를 집전하는데, 보통 2~3명의 태국인이 참례하였다. 이한울 신부는 태국공동체를 위하여 영적·물적으로 지원하며, 캄폰과 함께 입원 중인 환자를 방문하였다. 또한 성 베네딕토 수녀회의 이숙자(미셸) 수녀가 태국공동체의 노동자와 환자들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선교사 캠프는 병원방문, 교도소방문, 중증환자 귀국조치, 국제결혼 가정방문, 통역지원 등을 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입원한 질병환자나 산재환자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물품과 용돈을 지원하며, 완치될 때까지 치료과정과 산재처리과정을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2007년에 대전교도소 태국인 수감자에게 필요한 음식과 속옷, 용돈 등을 지원하였다. 중증환자들이 한국에서 일정기간 치료한 뒤 귀국하면 건강상태와 생활상태 등을 계속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품을 지원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생활의 고충을 우선 들어주면서 한국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하고 가족, 이웃과 의사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빨리 익히도록 독려하며 그들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였다. 입원환자와 의사 또는 국제결혼한 태국 여성과 가족들이 의사를 소통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오해가 있을 때 한국인 상담원과 동행하여 공장을 방문하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역을 지원하였다.

## 7. 베트남공동체



민속공연

2000년 9월에 우엔 반 지엔(Nguyễn Văn Diên)과 몇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타이완에서 사목하다 한국을 방문한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베트남인 흥(Hung, S.S.C.) 신부를 만나 성북구 돈암동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평신도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흥 신부가 없을 때는 의정부로 가

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패트릭 신부가 집전하는 영어미사에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2001년 5월부터 우엔 반 지엔을 중심으로 모임을 지속하였는데, 베트남어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가 오면 미사를 봉헌하면서 평신도공동체를 유지하다 2003년 4월 9일에 살레시오 회 팜 탐 빈(Phạm Thanh Bình, S.D.B., 방평화) 신부가 사목활동을 시작함으로써 정식으로 베

트남공동체를 형성하였다. 팜 탐 빈 신부는 이주노동사목 책임자인 도요안 신부의 도움으로 입국한 뒤 4월 13일부터 노동사목회관 3층 강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2004년 10월 11일부터 이주노동자 상담실에서 근무하였다.



사목자, 수도자와 봉사자

팜 탐 빈 신부는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성사를 집전하였고, 다른 교구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고해성사와 미사를 집전하였다. 6개 지역공동체(Thái Bình, Nam Định, Nghệ An, Hà Tĩnh, Quảng Bình, Sài Gòn)로 조직하여 월 1회 지역공동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행사를 거행할 때 지역공동체별

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하였으며, 월 1회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2004년 당시 베트남노동자는 25,000여 명, 불법체류자는 15,000여 명이었다. 서울 근교에 5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었지만, 120~140여 명이 미사에 참여하고, 성탄대축일에는 비신자까지 약 500명이 참석하였다. 2004년에 말씀의 선교 수도회 원고삼(Nguyễn Cao Sâm, S.V.D.) 신부와 도미니꼬수도회 짜우(Châu, O.P.) 신부와 피(Phi, O.P.) 신부가 사목에 도움을 주었으나, 도미니꼬 수도회의 두 신부 모두 귀국하였다. 2004년 3월 14일에 김수환 추기경이 베트남공동체를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고, 2004년 8월 22일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 호치민교구장 팜 민 만(Phạm Minh Mãn)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였다.<sup>136)</sup>

2005년에 팜 탐 빈 신부와 원고삼 신부가 주일미사와 성사 집전, 신자 재교육, 각종행사 등 사목활동으로 6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2004년에 마산·대구·구미 등지를 방문하여 사목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도미니꼬수도회 신부들이 귀국하여 다른 교구에서 베트남인 문제가 생겨 서울 이주노동자상담실로 도움을 요청하여도 지원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다.<sup>137)</sup>

2006년에 7명의 베트남 신부들(캐나다 국적 1명, 일본 국적 1명, 프랑스 국적 1명, 베트남 국

136) 베트남공동체 팜 탐 빈 신부, 2004년 활동 보고서.

137) 베트남공동체 팜 탐 빈 신부, 2005년 활동 보고서.

적 3명, 미국 국적 1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11월 11일에 부산교구에 1명, 서울대교구에 1명 등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어를 공부한 뒤 베트남 공동체를 함께 사목하였는데, 서울대교구에서 활동할 전민주(Trần Minh Châu O.P.) 신부와 베트남 퀴년교구의 사랑의 성 십자가 수녀회 레 티 박 뚜엣(Lê Thị Bạch Tuyết, S.N.D.) 수녀가 노틀담수녀회 도움으로 수녀원에 기거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10월부터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마이 티 홍 옥(Mai Thị Hồng Ngọc)이 베트남 공동체를 위하여 주 3일 봉사하였다.<sup>138)</sup>

허윤진 신부와 도요한 신부의 도움으로 보문동의 4층 건물에 베트남공소를 마련하여 2007년 5월 13일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김운희 주교, 주한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노동사목위원장 허윤진 신부, 이주사목담당 도요한 신부, 살레시오회 한국관구장 황명덕 신부 등이 베트남공동체 신자들과 함께 축성식을 거행하고 5월 20일부터 주일미사를 봉헌하였다. 2007년 9월 2일에 남 딘(Nam Định)에서 박 닌(Bác Ninh)을 분할하여 7개 지역공동체가 되었으며, 각 공동체는 후보성인을 정하여 축일에 미사를 봉헌한 뒤 공동체별로 함께 식사하며 친교를 다졌다. 3월부터 1년에 4회 베트남공동체 소식지인 『Hiệp Thông』을 발행하였다. 한국어를 공부하던 전민주 신부와 레 티 박 뚜엣 수녀가 공부를 마치고 뚜엣 수녀는 2007년 12월부터 성북구결혼이민자기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하고, 전민주 신부는 2008년 6월부터 의정부교구 녹양동성당의 의정부이주노동자 상담실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팜 탐 빈 신부는 이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고, 한국문화를 많이 알게 하기 위하여 후원기관들의 도움으로 각종 문화행사,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신심행사를 실시하여 비신자 노동자들도 많이 참석하였다. 상담실 주요업무인 고충상담은 팜탐빈 신부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상담실의 다른 직원과 함께 해결하였는데, 베트남전에 태권도교관(당시 육군 대위)으로 파견되었다가 귀국하여 중·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류시황(柳時滄, 토마스 아퀴나스)이 2001년부터 베트남어 통역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팜 탐 빈 신부의 사목활동과 상담실의 베트남인 고충상담을 많이 도와주었다.<sup>139)</sup>

138) 베트남공동체 팜 탐 빈 신부, 2006년 활동 보고서.

139) 베트남공동체 팜 탐 빈 신부, 2006년 활동 보고서.

## 8. 몽골공동체<sup>140)</sup>

몽골공동체는 2004년 4월부터 몽골인 김지혜(KHURELSUKH JIGJIDSUREN)가 몽골인, 러시아인 등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실에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김지혜는 2004년 11월 8일부터 선교사 자격으로 파견되어 정식직원이 되었다. 김지혜는 동대문의 몽골타운을 찾아가 안내책자를 나누어주고, 마장동을 방문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등



추석음식축제

적극 홍보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상담실을 찾아왔다. 고충상담 가운데 임금체불 문제가 제일 많았고, 특히 건설업 임시고용직이 많았다. 경기가 침체되어 파업하는 회사가 많아 일자리를 잃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 일부라도 받아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돈을 받으려다 체포되어 출국을 당할까 두려워 노동사무소에 진

정을 포기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였다.<sup>141)</sup>

2005년 9월 19일에 처음으로 47명이 ‘코엑스’ 전시관에서 ‘인체의 신비’를 관람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로 하였고, 2006년부터 좀 더 조직적으로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05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불법체류 몽골노동자들이 자진 출국하였는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한 이들이 많아 귀국 전에 위임장을 받아 나중에 업주에게 받은 임금을 송금하였다. 아파도 평일에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주로 라파엘 클리닉을 이용하는데, 환자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김지혜가 동행하여 통역하여 주었다.<sup>142)</sup>

2006년은 불법체류노동자들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노동자들도 상담실을 많이 찾았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체류노동자들의 경우 언어, 사업장 이동문제 등이 많

140) 문화체험 등 연례행사 생략.

141) 몽골공동체 선교사 김지혜, 2005년 1월 31일자 보고서.

142) 몽골공동체 선교사 김지혜, 2006년 1월 27일자 보고서.



의료지원

아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통역하여 주었다.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2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하여야 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동행하여 취업 알선장을 받아주고 회사에 전화하여 위치·근무시간·수당·숙소·식사 등을 알아보고 빨리 취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업장 변경사유를 판단하여 근무처 변경사유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도와주었다.

2006년에 법무부가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로 특별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여 이 내용을 홍보하자 문의전화의 수가 많아졌다. 2006년의 고충상담은 주로 사업장 이동문제, 임금체불, 의료 등으로 사업장이동은 업무가 어렵고 동료와 마찰, 폭행 등 인권 침해와 낮은 임금, 임금체불, 회사폐업, 건강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특별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심하였는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의료문제는 환자들이 라파엘 클리닉을 많이 이용하고, 심하면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받게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을 통역하였다.<sup>143)</sup>

2007년 3월부터 몽골노동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귀국한 이들도 해당되었으며, 2007년 8월 29일부터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전화사기 피해가 많아져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 때문에 불법체류자들과 여행비자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일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통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은 귀국비용보험금이나 출국만기보험금 등을 받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린 노동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때 통장이 필요하면 노동자와 동행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은행직원에게 사정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다.

2007년의 고충문제 상담은 총 183건으로 불법체류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78건으로 가장 많았

143) 몽골공동체 선교사 김지혜, 2007년 1월 4일자 보고서.

는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출국만기보험금, 사업장변경 문제가 뒤를 이었다. 근무기간이 1년 되기 전에 노동자를 퇴사시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한 업주들도 있었다.<sup>144)</sup>

## 9. 베다니아의 집



베다니아집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 까지 베다니아의 집을 이용한 이들은 18개국에 연인원 3,602명이었으며<sup>145)</sup>, 1999년부터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외국인들도 일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sup>146)</sup> 1999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8개국에 1,774명이 베다니아의 집을 이용하였다.<sup>147)</sup> 2000

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베다니아의 집을 이용한 이들은 18개국 1,586명이었다.<sup>148)</sup> 2001년 3월에 미아삼거리에서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뒤편 연립주택으로 이전하여 5월부터 외국인 산재환자 84명이 984일 동안 입소하여 장·단기 무료 숙식을 제공받았다.

2002년에 17개국 170명이 입소하고, 연 상주 일수는 2,248일이었다.<sup>149)</sup> 2003년에 12개국 86명이 입소하여 연 상주 일수는 1,052일이었으며, 2004년에는 11개국에서 온 외국인 환자 91명(연숙박 일수 1,658일)이 입소하였는데, 약 84개국 984명이 입소하여 무료숙식을 제공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여 노동현장으로 복귀하거나 귀국하였다.<sup>150)</sup> 2005년 14개국 148명이 입소하여 연

144) 몽골공동체 선교사 김지혜, 2008년 1월 10일자 보고서.

14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상담실, 1998년 외국인 상담활동 보고서.

14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상담실, 1999년 외국인 상담활동 보고서.

147)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9년.

148)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사목보고서 2000년.

149)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보고서 2002년.

15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보고서 2004년.

상주 일수 3,074일 동안 의료혜택을 받았고, 일부는 귀국 후의 생계비까지 도움 받았다. 대부분 불법체류자들로 장기간 심하게 노동하여 여러 가지 중병으로 고생하였다.<sup>151)</sup>



기초상담

2006년은 16개국 151명이 연 상주 3,256일 동안 입소하여 생활비 보조와 의료지원, 교육문화 행사비 지원, 일부 퇴소자들의 생계 지원, 출국지원비 등의 혜택을 주었다.<sup>152)</sup> 2007년은 노동사목위원회 후원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부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상담실에서 의뢰한 외래환자를 동행하여 진료와 입원수속, 방문활동을 하

고, 비상시에 입원치료비를 마련하는 데 협조하였다. 또한 출국비용,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미용기술 습득, 한국어 공부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잠원성당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귀국한 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와 재활비용을 도와주었다. 2007년은 잠원성당, 구리성당, 돈암동성당 등에서 노력 봉사를 하였다. 2007년 12월 15일 당시 10개국에 상주 인원 31명, 연 상주 1,798일 동안 입소하여 의료 혜택 등을 받았다.<sup>153)</sup> 2008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5개국 9명의 입·퇴원과 외래진료에 동행하면서 노동사목위원회 후원금으로 병원비 전액과 부식비와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였다. 2008년 6월 30일 당시 5개국 13명의 환자가 총 1163일 상주하였다.

## 10. 벗들의 집<sup>154)</sup>

성골롬반수녀회의 오 데레사 수녀가 러시아 여성문제로 2001년 1월 12일에 강우일 주교를 만나고, 1월 30일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용동진 신부와 착한 목자 수녀회 용인숙

15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보고서 2005년.

15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보고서 2006년.

153)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7년 연보고.

154) 문화체험과 신앙행사 등 연례행사와 심포지엄, 간담회 등 외부기관 주최행사, 교육 등 생략.

(요한나 마리아) 수녀가 강우일 주교를 면담한 뒤 3월에 베다니아의 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벗들의 집을 개소하였다.<sup>155)</sup> 3월 3일에 강우일 주교가 축성미사를 집전하였으며, 2001년 8월에



공예수업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단체로 인준을 받았다.<sup>156)</sup> 이어 2003년 7월 15일에 구의동으로 이전하여 8월 29일에 김은희 주교가 축성하고, 9월 9일에 여성부장관이 방문하였다.

2003년 4월 11일부터 의정부기지촌, 평택기지촌, 대전 유천동유흥가에 명함과 라이터를 돌렸다.

입소자는 2003년 52명<sup>157)</sup>, 2004

년 38명<sup>158)</sup>, 2005년 54명<sup>159)</sup>이었는데, 2004년까지 예술홍행 비자로 입국하여 성 매매 문제로 입소한 러시아 여성들이 절대 다수였으나, 2005년부터 이들이 줄어든 대신에 국민의 배우자 비자(국제결혼)로 입국한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많아졌다.<sup>160)</sup> 2006년의 입소정원은 동반자녀

155) 2001년 사회사목부 사제회의 보고.

156)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2004년.

157) 성매매문제 48명, 가정폭력 3명, 기타 1명이었으며, 출신국가는 러시아인 47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키르기스스탄과 필리핀인 각각 1명이었다. 20~25세가 25명, 26세 이상 27명이었고, 입소기간은 1개월 미만 38명, 1~2개월 12명, 2~3개월과 4~5개월이 각각 1명이었다. 입국경로는 예술홍행 51명, 단기종합 1명이며, 자원입소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대사관연계 11명, 경찰청연계 9명, 기타 3명 등이었다. 외국인쉼터 운영 최종보고서, 2003년.

158) 성매매여성 34명, 가정폭력과 국제결혼문제가 각각 3명이었으며, 국적은 러시아인 33명, 필리핀인 5명, 피지와 몽골인 각각 1명이었다. 20~25세 14명, 26세 이상이 26명이었으며, 입소기간은 1개월 미만 8명, 1~2개월 25명, 2~3개월 6명, 4~5개월 1명 등이었다. 입국경로는 예술홍행 33명, 단기종합 1명, 기타 6명이며, 입소사유는 경찰청연계 1명, 대사관연계 5명, 자원 28명, 기타 6명 등이었다. 2004년에 9명에게 연간 19회 의료지원, 5명에게 6회 법률상담, 한국어교육 24회와 미술치료 20회 등 총 170회 교육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였다. 외국인쉼터 운영 최종보고서, 2004년.

159) 가정폭력 23명, 성매매 9명, 동반자녀 9명, 성폭력 3명, 기타 10명 등이었으며, 국적은 러시아 12명, 필리핀 9명, 베트남 8명, 태국 6명,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각각 4명, 기타 등이었다.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29명, 동반자녀 9명, 예술홍행 8명, 단기종합 6명, 귀화 2명 등이었다.

160) 이들에게 교육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행정지원 등의 귀국지원과 통역지원, 심리치료와 각종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부산 초량동 텍사스촌, 이태원 일대 유흥가, 평택·의정부·동두천 미군기지 현장방문과 구조활동, 전국 1366과 여성상담실, 쉼터, 전국 외국인상담실, 서울과 의정부 일부 택시, 파주 미군부대 주변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벗들의 집, 2005년 사업실적서.

포함 10명에 연중 입소인원 59명, 퇴소인원 62명, 2006년 12월 31일 당시 4명이 입소하였다.<sup>161)</sup> 2007년 벳들의 집 입소 정원은 11명으로 전년대비 1명 증가하였으며, 연중입소인원 130명, 연중 퇴소인원 129명이었다.<sup>162)</sup>

## 11. 베들레헴 어린이집<sup>163)</sup>

남편과 가족들의 학대를 못 견디고 가출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들과 야간근무 등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은 언어·비용문제 등으로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나 사회기관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아 국제 결혼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이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였다.<sup>164)</sup> 필리핀 가톨릭 공동체의 미켈라 산티아고(Miguela Santiago F.M.A., 1933~) 수녀와 노동사목위원회 총무가 이 업무를 맡아 추진하여 2003년 5월에 필리핀 공동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sup>165)</sup>, 8월에 12일에 보문동에 있는 ‘베디니아의 집’ 2층에 보

161) 연중 입소자는 가정폭력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반자녀 10명, 성 매매 6명, 의료 3명 등이었다. 출신국은 베트남 15명, 필리핀 10명, 태국 8명, 우즈베키스탄 3명, 조선족·러시아·카자흐스탄 각각 2명, 중국과 미얀마 각각 1명, 기타 5명 등으로 2004년 이전과 비교하여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나라 출신 여성들이 입소하였다. 16~19세 4명, 20~24세 16명, 25~30세 10명, 31~35세 11명, 36~40세 6명, 41세 이상 2명 등으로 20~25세, 26세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2004년이 비하여 다양한 연령이 고루 분포하였으며, 입소기간은 1개월 미만 28명, 1~2개월 11명, 2~3개월 10명 등이었다. 체류자격은 예술홍행 6명, 국민의 배우자 40명, 기타 3명 등이었고, 입소경로는 1366으로 입소여성 15명, 이주노동자상담실 15명, 경찰서 10명, 대사관 9명 등이었으며, 퇴소사유는 일반퇴소 52명, 귀국 8명, 무단퇴소 2명 등이었다. 지원현황은 의정부·동두천 미군기지 홍보활동 2회, 교육지원 3건 3명, 의료지원 15건 13명, 법률지원 17건 13명, 귀국지원 12명, 통역지원 18건 18명, 심리치료 35건 21명, 관련시설과 연계 20회, 상담 157건 등이었다: 외국인쉼터 운영 최종보고서, 2006년.

162) 성매매문제로 입소한 여성이 연 인원 16명, 가정폭력과 불화로 입소한 여성이 연인원 76명, 동반자녀 연인원 30명, 의료 1명, 고용허가제 7명 등이었다. 출신국은 베트남 24명, 중국 19명, 태국 18명, 몽골 12명, 필리핀 10명, 콜롬비아 4명, 러시아와 캄보디아 3명, 우즈베키스탄 1명, 미얀마 1명, 키르기스스탄 1명, 프랑스 1명, 미국 1명, 우간다 1명, 타이완 1명 등이었다. 연령은 16~19세 4명, 20~25세 28명, 25~30세 26명, 30~35세 21명, 35~40세 13명, 40세 이상 8명 등이었고, 입소기간은 1개월 미만 81명, 1~2개월 8명, 2~3개월 4명, 3~4개월 4명, 4~5개월 2명, 5개월 이상 1명 등이었다. 체류자격은 예술홍행 16명, 단기종합 6명, 국민의 배우자 70명, 기타 8명 등이었으며, 입소경로는 1366(1577-1366 포함) 19명, 여성상담실 16명, 이주노동자상담실 15명, 경찰서 12명, 자원입소 8명, 대사관 15명 등이었다. 퇴소사유는 귀국 26명, 일반퇴소 66명, 무단퇴소 8명 등이었다. 지원현황은 현장방문과 구조활동, 홍보활동, 교육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귀국지원, 통역지원, 심리치료, 관련기관 연계활동, 기타 등이었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실적보고서, 2007년.

163) 자세한 내용은 베들레헴 어린이집, 각년도 운영보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각년도 외국인사목 월례회의록 참조. 계속되는 언론기관 보도와 기업·단체·개인들의 지원내용 생략.

164)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7년 운영보고.



생일잔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05년 1월 14일에 인가되었다.

#### 1) 주요활동

2004년 12월 1일에 자녀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심리치료실을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2004년 9월에 그리스도왕 선교수도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12월에 성가소비녀회 수녀들이 부천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기 위하여 실습하였다.

2005년 1월 16일에 부모모임을 개최하였으며, 어머니들의 보육지식 부족으로 자녀들의 발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교육을 공감하고, 봉사자 수칙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매주 화요일에 체육교사를 초청하여 어린이들을 교육하였고, 7월 1일에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부모를 위한 한국어반을 개설하였다. 9월 20일부터 학원에 다니는 8명의 어린이들은 수녀, 2~3세 10명은 새로 온 보육교사가 담당하였으며, 그리고 영아반(마를린)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sup>165)</sup>

2006년 4월에 어린이 5명이 성북구청 보육지원비 대상이 되고, 8월 25일에 '2006년 서울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9월 17일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성북2동에 있는 '뉴하우스'를 계약하고 12월에 개축하였다. 2006년 4월 8일에 울동·가면놀이·비누방울놀이를 하고, 5월 6일에 바람·흙·물·꽃과 같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16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외국인사목 월례회의록 2003년 5월.

166)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7년 운영보고; 외국인사목 월례회의, 2005년 1~12월.

육공간을 마련하여 8명의 어린이들을 입주시켰다. 이어 2004년 4월 13일에 성북1동 131-39의 단독건물을 계약하고, 7월 26일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담당 김윤희 주교가 축성하였다. 9월 8일에 살레시오수녀회 수녀 4명이 입주하고, 9월 10일에 어린이 19명을 이주시켰으며, 11월 1일에 성북구청에 보육시설 설치

어 7월 1일에 어린이 연극 ‘공주님의 달’, 8월 26일에 연극 ‘신밧드의 모험’을 관람하고, 9월 30일에 낙하산놀이, 12월에 신문지를 찢어 눈사람 만들기 등을 하였다.<sup>167)</sup>

2007년 3월 1일에 ‘뉴하우스’로 초등학교 입학생 3명과 취학 전 어린이 6명 등 총 9명이 분가하였다. 성북초등학교가 9월에 뉴하우스 초등학교 3명에게 다문화가정자녀 지원비를 지급하여 특기적성교육과 발표력을 수강하게 하였다. 10월부터 이화여자대학생 1명이 토요일, 배화여자대학생 2명이 주 5일에 각각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도하였다. 11월 23일에 6세~초등학생을 위한 주택을 전세로 계약하여 12월 7일에 이사하고, 12월 22일에 성북구청으로부터 24시간 및 휴일 보육시설로 인가 받았다. 또한 12월 26일에 가톨릭사회복지회 ‘2008년도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결혼이민자자녀 엄마나라 방문하기’에 선정되었다.

2007년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심리검사를 한 뒤 놀이치료와 심리치료를 시행하였다. 또한 외부강사의 도움으로 매주 화요일에 신체교육활동, 매주 금요일에 언어발달과 듣기교육, 매주 수요일에 피아노연주 기초교육과 기본동요 부르기교육 등을 하였다. 또한 15명의 부모에게 매주 일요일에 한국어교육, 매주 토요일에 7명의 어린이에게 생활한국어를 교육하였으며, 매월 네 번째 주일에 어린이와 부모 생일잔치에 자기 나라 요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었다.

2007년 2월 19일에 설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어린이집 가족모임, 9월 26일에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한가위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어린이집 가족모임, 12월 23일에 송년축제를 위한 어린이집 가족모임 등을 각각 개최하였다. 3월 18일 창경궁 나들이, 5월 5일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 6월 24일에 어린이캠프, 7월 22일에 가족캠프 등을 시행하였으며, 8월 17일에 ‘발레 심청’ 관람, 9월 8일에 민속촌체험 프로그램, 9월 16일에 행복 페스티벌 참여 등이 이어졌다. 9월 30일에 살레시오수녀회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 영성의 날 행사에 찬조로 출연하고, 10월 7일에 전국결혼이민자가족 야외행사, 11월 4일에 다문화가족축제 등에 각각 참가하였다. 또한 1월에 이솝빌리지(뮤지컬) 관람, 1월 28일에 지역부인회 지원으로 어머니 18명이 김장을 실습하였다. 3월 10일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책 읽기와 만화영화 시청, 5월 26일에 뒷산 산책과 공원에서 게임, 7월 25일에 2007년 캐릭터 페어 참가, 10월 6일에 액자 만들기와 어린이집 벽면 장식, 12월 16일에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를 각각 시행하였다.

167)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7년 운영보고; 외국인사목 월례회의, 2006년 1~12월.

## 2) 문제점과 해결방안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일반적으로 교육기관과 부모들이 담당하지만, 24시간 보육시설인 베들레헴 어린이집에 위탁된 어린이들은 이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감당하였다. 더구나 결혼이민자인 어머니들의 제



다문화가족축제

반문재인 가족의 언어와 육체적인 폭행, 아버지의 문제로 인한 어머니와 자녀의 동반가출과 가족해체, 사망 혹은 이혼으로 인한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따른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까지도 어린이집에서 맡았다. 둘째, 어린이집에 위탁된 어린이들은 어머니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여 언어발달

이 더디고, 가족 내에서 결혼이민자 어머니들의 위치와 역할,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될 때는 자녀를 어머니의 고국에 보내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모권을 수호하지만, 이럴 경우 자녀는 언어혼란에 빠지고 정상적으로 교육받지 못하며, 어머니는 자녀를 위하여 모국의 가족들의 재정을 부담하는 어려움까지 감수하였다. 셋째,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시설이라는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 문제로 야간에 외국인 어머니들을 보모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아동 증가와 성장에 따른 교육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발달시기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순간구호를 요청하는 이들을 위한 환대의 공간이 되지 못하였다. 넷째, 정착자립이 어려운 어머니들의 문제로 인해 초등학교들 까지도 방과 후 지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현상은 어휘력, 이해력, 사고력의 부족으로 나타나 상급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수용공간 확보,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교육적·경제적 지원, 기초학습능력 배양 등)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24시간 및 휴일 보육시설로 특성화한 어린이집으로 아동인원에 대비한 교육공간 확보, 체계적인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아동에게는

다문화가정의 강점인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아동에게 자긍심과 정서적 안정을 갖고 성장하여 글로벌시대의 인력자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체험학습과 정서교육을 위한 연대를 구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책임감 부족, 불규칙한 활동 등)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부모교육과 어머니들의 한국어교육도 전문성을 갖추어 그들의 사회생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등) 실제적인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정방문 등 해체가정의 재통합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어머니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이수시켜 전문성을 습득시키며,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sup>168)</sup>

## 12.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005년 당시 결혼이민자는 75,01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국제결혼이 급증하자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등장되어 2006년 3월 3일에 여성가족부 산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 운영위탁약정’을 체결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2007년 2월 26일에 살레시오수녀회 권오희(세라피나) 수녀가 노동사목회관 5층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한글교실

개소하고, 3월 30일에 김운희 주교와 성북구청장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4월 3일에 한국어교육으로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9월 16일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 9명이 응시하여 8명이 합격하였고, 12월 13일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시험을 보았다. 5월 9일

168) 베들레헴 어린이집, 2007년 운영보고; 외국인사목 월례회의, 2007년 1~12월.

부터 한국조리장협회 회원들이 자원봉사하는 한국요리, 6월 1일부터 퀵트교육을 각각 시작하였다. 7월 2일과 9월 16일에 제1차 한울안, 행복만들기 부부, 배우자교육을 시행하고, 9월 19일에 예지원에서 추석상차림과 명절예절을 배우기와 11월 29일에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문화 알기교육을 각각 시행하였다. 문화행사는 5월 20일에 민속촌 관람, 6월 4일에 서울지역 결혼이민자가족 야유회 참가, 6월 15~16일에 결혼이민자가족캠프, 7월 9일에 가족캠프, 10월 7일과 11월 4일의 다문화축제에 각각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18일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부모 자조모임을 만들었으며, 11월 3일에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들이 친정부모 초청행사에 참여하였다. 12월 5일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전국 평가대회에 참가하고, 12월 20일에 성북구센터 프로그램 수료식과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2008년에 80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2월 19일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사)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서울센터에서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로 변경되고, 살레시오수녀회곽정남(유스티나) 수녀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다. 1월 4~5일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사들이 강화도에서 연수를 하고, 1월 22일에 2008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였다. 3월 4일에 2008년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강식을 거행하고, 3월 4일에 한국조리장협회 회원들이 봉사하는 한국요리를 시작하였으며, 3월 16일에 제2차 한울안, 행복만들기 부부, 배우자 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매주 화요일에 성북구보건소와



송편 빚기

연계하여 임신·출산 태교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3월 24~28일에 성북구청과 연계하여 컴퓨터 교육도 시행하였다.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이민자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우리 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자조집단, 전문상담, 정

서지원, 결혼이민가족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다. 또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의 각 공동체와 연계하여 통역과 고충상담, 국적취득에 관련된 서류준비와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결혼이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방문교육사업을 하였는데, 방문교육사업은 한국어지도사가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도사가 주 2회 가정을 방문하여 결혼이민여성에게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이었다.

### 13. 이주사목 평가와 전망

노동공급 환경의 변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서 3D업종 취업기피로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저숙련 이주노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정부의 이주인력정책은 이주인력을 통하여 노동력 부족을 완화한다는 방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관련 법·제도를 미처 정비하지 못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문제, 노동문제 등에서 발생한 인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드러났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여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개선, 법률구조, 체류지원 등 인간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주노동사목을 전개하였다. 즉, 종전의 산발적인 지원과 사목활동을 정비하여 1992년에 이주노동자상담실을 개설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상담활동과 이를 통한 권리구제나 사회적 지원뿐 아니라, 법·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는 교회가 낮은 곳을 찾아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주노동사목 활동을 종합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상담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노력이다. 이주노동자상담실은 1992년 개소 이후 상담을 통한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처리뿐 아니라, 관련법규나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노력하였다. 고충상담, 조사연구, 한글교실 등 문화사업, 의료상담, 기타 법무부 출입국관계 상담 그리고 컴퓨터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상담업무 이외에 사회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적별로 공동체를 운영하여 교회와 이주자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상담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적극적인 사목활동을 통하여 상담지원을 필요로 하는 불법체류자나 이주노동자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을 적극 도와주는 한편, 신앙심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금자리인 ‘베다니아의 집’, ‘벗들의 집’, ‘베들레헴 어린이집’을 제공하여 이들의 아픈 몸과 영혼을 치유하려고 노력하였다. 베다니아의 집은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 지속적으로 통원치료가 요구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하여 해결과정에서 쉽터가 필요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짧게는 2~3일, 길게는 6개월까지 머무르며 아픈 몸과 지친 영혼을 치유하였다. ‘벗들의 집’은 초창기에 성매매 피해 여성인 러시아 여성들을 주요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정부가 이들 여성에 대한 비자발급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입국이 줄어들자, 이후에는 주로 국제결혼으로 입국하여 가족폭력을 겪는 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지원하였다. 베들레헴 어린이집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24시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 정체성과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법률상담, 부부상담을 통하여 가정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넷째, 국제결혼이 급증하자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이 국가의 당면과제로 등장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7년 2월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가족교육, 상담 등과 같은 기본사업 외에 정서지원,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내부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 다문화사회에 따른 교회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회의 이주사목은 이주노동사목에서 점차 한국의 이주민사목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은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여져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는 더욱 다가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말 국내체류 외국인인 1,066,273명으로 인구의 2.2%를 차지하였으며, 1997년에 386,972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10년 사이에 2.75배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2년에는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체류유형도 종래 단순노무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결혼이민자, 유학생, 투자가 등으로 활동유

형별로 다양해졌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2007년 말 기준 146,508명으로 전년도 124,459명에 비하여 17.7% 증가하였으며 결혼이민자 2세들의 취학도 증가하여 이들의 교육문제 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여졌다.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 볼 때 다문화사회는 이민자의 사회부적응과 저소득층 전락, 인종적·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회는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난민신청자가 대거 발생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지원체계는 답보상태이었다. 2007년의 경우 난민 신청자는 717명인 반면, 난민 인정자는 13명에 불과하였다. 난민문제에 대해서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주사목의 필요는 향후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내부역량 강화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 제10절 노동사목회관

### 1. 종로 노동사목회관 이용현황<sup>169)</sup>

1998년부터 노동사목회관이 종로에서 보문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주관하였던 프로그램은 첫째, 1990년 매주 화요일에 시행한 봄·가을 학기 기초노동법으로 1999년까지 수료한 교육생은 약 500명 정도이었으며, 지역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 교육생들의 추세는 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었고, 2000년은 노동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위탁교육을 의뢰하였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 모임(AA)으로 30명 정도가 중독에서 회복되도록 서로 돕고 경험과 희망을 나눔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부부문제 모임으로 가정불화로 고통 받는 신자가정의 부부들(주로 이혼을 앞둔)이 매주 가정생활에서 서로 상처받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새로운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모였다. 넷째, 가정불화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 즉 부모의 이혼, 불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정에서 자란 성인자녀들이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과 성숙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사회교리모임으로 매주 7명이 대화년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에 대한 사회교리에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있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컴퓨터 교육, 예비신자 교리, 에니어그램 등이 있었다.

노동사목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당시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가톨릭에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장소가 있고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상당히 감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선교효과를 보았으며(냉담자에 대한 관심, 가톨릭 신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지역성당 안내,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서울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건물이 있고 자기들만의 교육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월 평균 1,270명 정도(연간 13,930명)가 이용하는데, 주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이었다.

그러나 서울지역 노동계 안에서 노동사목회관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되었다. 즉, 당시 건물이 낡아 현실에 맞는 건물 시스템으로 구조가 변경되도록 대대적인 내부수리가 절실하고, 건물위치는 대단히 만족스럽지만, 내부시설은

169) 서울대학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사회사목부 사목방문보고서 1999년; 2000년.

많은 이들이 즐겨 찾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으며, 성당과 회관이 나누어 사용하므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2.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신축



대지 축성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의 건물 모형,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1998년 3월 5일에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신부와 면담하고 3월 11일의 교구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뒤 바로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부지가 암반(巖盤)으로 되어 있어 지하 2층까지만 시공하기로 변경하였다.<sup>170)</sup> 1998년 9월 16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0월 21일

에 건축허가승인(일반 12호)을 받았다. 11월 14일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부 담당 최창무 주교가 신축하려는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대지를 축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여 11월 23일에 건축설계변경허가승인(허가 제80호)을 받았다. 노동사목 관련단체들에게 후원과 협조를 구하고, 회관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캘린더를 제작하고 성지순례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다.<sup>171)</sup> 1998년 12월 22일에 시작된 공사는 2001년 3월 12일에 사용허가승인(준공검사)을 받음으로써 완료되어 2001년 3월 26일에 명동노동문제상담소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먼저 이주하였다. 4월에 3층 음향시설 공사를 시행한 뒤 5월 1일에 노동사목회관 축성식을 거행함으로써 모든 공사와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보문동 노동사목회관은 대지 551.40㎡, 건축면적 318.11㎡, 건폐율 59.69%, 연면적 2,998.10㎡, 용적률 2,313.66㎡이며, 지하 2층, 지상 8층의 사회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로 인가

170)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3월 5일자.

171)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회의록 1998년 11월 12일자.



회관 공사

산재사목·어린이사도직·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장년회·노동사목수녀분과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6층은 큰 온돌방과 작은 온돌방, 회의실, 7층 사제관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8층은 가톨릭미술아카데미 연구실로 임대하였다.

되었다. 지하 2층은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식주차장이며, 지하 1층은 가톨릭미술아카데미에 임대하였다. 1층은 노동사목회관의 사무실과 골롬바다실로 사용하고, 가톨릭미술아카데미와 성미술감독원에 임대하였다. 3층은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하고, 4층은 노동사목위원회와 이주노동자상담실, 5층은 성당과

### 3.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이용현황

2001년 3월에 보문동으로 노동사목회관을 이전한 뒤에도 노동사목위원회 각 분과 연수회와 총회, 지역모임, 각 사도직단체 동반자 모임과 피정, 신학생 현장체험, 성서공부, 에니어그램, 미술강좌, 혼인미사, 대축일 행사, 이주노동자 미사와 잔치 등을 시행하였으나, 기초노동법강좌는 중단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노동조합이나 사회시민단체들이 노동문제를 자체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소를 마련한데다, 노동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나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이었다. 의료보험조합, 체신노조모임, 극단산맥 연극연습, 청년전례모임, 고등학교 3학년 피정 등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대관하였다.

2002년 이후 사도직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의 모임을 지원하는 빈도가 높아졌는데, 사도직단체의 매월행사, 이주노동자공동체 한글반, 미사와 어른·어린이 교리 등이고, 노동자 모임은 상시위탁 집배원 모임, 청원경찰 모임 등이었으며, 영어복음 나눔, 에니어그램 강좌, 단주모임 등도 있었다. 대관업무는 종교, 사회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의 각종행사를 수용하였다. 회관이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에 적합한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회관건립 목적에 합당한 노동자들에게 필요

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홍보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 노동사목회관의 당면과제로 떠올랐으며, 회관 숙박시설 개선과 회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교환하여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sup>172)</sup>

2004년의 당면과제는 재정자립을 위한 대관 활성화와 유지관리의 효율성 향상, 회관건립 목적에 합당하게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었는데, 주말에 외국인 공동체의 미사와 행사장소로 사용하여 대관수입이 감소하고, 대관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2007년이 되자 기존의 노동사목회관 자체 프로그램과 대관업무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다. 2월 26일에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되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일요일에 이주노동자들에게 시행하던 한국어교실 외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추가되고, 이주여성 쉼트강좌, 한국음식 만들기, 결혼이민배우자교육, 이주여성 시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개하였다.

---

172)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2002년 사목방문보고서.

## ✻ 제11절 요약과 평가

### 1. 요약

1998년은 IMF사태로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에만 매달릴 뿐,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실직자 대책은 실효성이 적었다. 교회는 실직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줄 수는 없었으나, 이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면서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루빨리 이들이 당면한 역경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교회는 각 교구와 본당별로 우선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직자 가정에 기초생필품을 지급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앞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실업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재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명동대성당이 설립한 평화의 집을 수탁 운영하고, 같은 취지의 구로 평화의 집을 운영하였다. 또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실업극복지원사업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위탁시설의 운영도 시도하였다.

노동사목위원회는 2000년을 노동자들의 대희년으로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교회가 가르친 노동의 참된 가치와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나와 이웃과 사회를 복음화하는 환경사도직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다.

1958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설립하여 노동사목을 본격화한 이래 오랫동안 안정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보문동에 노동사목회관을 건립하고 사도직단체와 상담실 등이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사목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후원기금을 다변화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노동사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오랫동안 노동사목에 종사하던 도요안 신부가 이주사목에 전념하는 대신에 용동진 신부와 허윤진 신부가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공고히 하였다. 그동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어왔거나 새로 부각되던 업무들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 즉, 산재사목에 전담사제와 전담수녀 그리고 평신도 실무자를 배정하여 복잡한 산재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산재환자들과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에 깊이 동참하고, 국가나 사회가 거의 방치하였던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것부터 해결해 나갔다.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심각한 숙제로 부각되었다. 이제 우리 민족만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이들을 이용하는 데만 골몰할 뿐 우리와 똑같이 하느님의 모상을 타고난 고귀한 존재인데도 우리 사회는 대부분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와 윤택한 삶에는 냉담하였다. 또한 이들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원이 요청되기 때문에 쉽게 뛰어들지도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하여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익숙하여졌으며, 다른 나라 교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이주사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법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절히 변용하는 능력을 키워왔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이주노동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나라와 민족별 공동체를 많이 조직하고 활성화하여 이들의 고통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쉽게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베다니아의 집을 확장·이전하고 벳들의 집과 베들레헴 어린이의 집, 성북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을 개소하여 다치고 병든 이주노동자와 이역만리로 시집와 문화적 차이와 오해 때문에 고통 받는 결혼이민여성들 그리고 백안시 당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영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노동사목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가진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이를 노동사목에 활용하였다. 즉, 주교들의 사목교서와 노동사목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기초자료 준비와 작성은 물론 교회 내 노동조합 결성 문제, 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백서발간, 산재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사목 50년사 발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70년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노동현장에서 복음화의 첨병이 되어 자신과 이웃, 환경을 활발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청소년 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부각되었으며, 청소년노동자 문제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이 사회를 압박하였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문제에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어린이사도직은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노동사목위원회는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청년회·어린이사도직

같은 사도직단체들과 산재사목을 통하여 국내 노동사목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이주노동자상담실과 국가와 민족 공동체, 쉼터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이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한 이주노동사목을 확대하였다.

## 2. 평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교회는 기존의 노동문제와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실직자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경주하였다. 다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교회 역시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에 기존의 노동문제에 흡수하였다.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여성들, 이들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순기능 못지않게 악기능 역시 우리가 안아야 할 몫이었다. 그러나 같은 사회를 이루면서도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식의 차이 때문에 유발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에 대한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로부터 받은 혜택을 훨씬 능가하는 고통과 상처를 받을 것이므로 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모든 문제를 교회가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는 우선 편리한 것을 쉽게 추구하는 대신에 귀찮은 것을 애써 외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특정한 단체나 기관만 힘들고 귀찮은 일을 떠맡는다면, 그 사회는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교회가 앞장서서 굶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기쁨만이 아닌 아픔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노동사목은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변신을 요구하였다. 3D 업종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맡기는 대신 서비스업을 비롯한 정신노동자들이 늘어났지만, 14시간 이상 노동하거나 장시간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거나 노동하는 자세가 비정상적이어서 육체와 정신을 손상하는 업종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여졌다. 교회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무엇을 주어야 하며 어떤 길로 이끌어야 할지 적절한 대안이 요구되었다.

나아가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늘 더 낮은 자세로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이들을 찾아 거리로 나서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굳이 하는 건 사회교리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교회는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늘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성찰하면서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왔다. 그리고 내일 하여야 할 일을 미리 준비하여 때가 되면 즉시 나섰다. 언제나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며,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그러해야 함을 인식한 이들이 더 많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